#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2 1981년9월3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Septemder 30,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OCT 2 1981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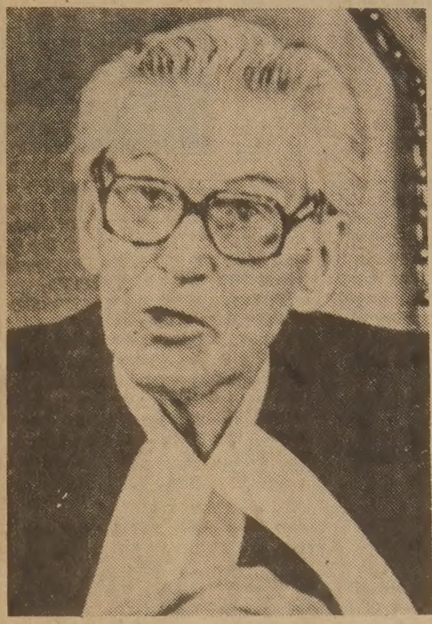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 "합법적이나 관례위배"

## 대법원, 헌법개정 절차에 최종판결

## 연방정부 · 8개주는 서로 승리로 해석

(오타와) 연방대법원은 28일 헌법개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일부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주정부의 동의를 요하는 캐나다의 전통에는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분명한 판결에 대해 헌법개정론자인 트루도 자유당정부와 반대 8개주 정부는 각자 승리를 주장하면서도 서로 더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보라·라스킨 연방대법원장이 28일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라·라스킨대법원장을 위시한 9명의 대법관은 이날 상오10시 정부인사, 저명한 공법관계 변호사등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오타와 소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 준비한 168 페이지의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판결문에서 7명의 판사는 연방정부의 헌법개정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2명의 판사는 비합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6명의 판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주정부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관례가 존재해 왔으므로 이를 무시한 트루도 수상의 개헌절차는 관례에 어긋나고, 전통을 무시하는 비도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트루도 수상이 이끄는연방 자유당정부는 작년가을 기본 인권조항및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모두 같은 정도씩 축소시키는개헌안을 마련, 연방의회의 건의를 거쳐 이를 영국의회에서 최종통과 시키려 했다.

캐나다 10개주중 온타리오주와 뉴브룬스윅주를 제외한 8개주는 야당 보수당 신민당등과 연합전선을 펴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헌법개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마니토바, 퀘벡주등 3개주 최고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으며, 이 문제는 결국 캐나다 최고재판소인 연방 대법원에 의뢰된 것이다.

이제까지 캐나다는 영국의회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만든 영국 북미통치법(브리티쉬·노스·어메리칸·액트 : BNA)을 헌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면 영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루도 수상은 독립국가인 선진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못가졌으며, 헌법개정때마다 영국의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을 지양하고, 좀 더 실정에 맞는 헌법을 갖기 위해 헌법개정을 필생사업중의 하나로 선택했다.

◇28일 상오10시 중앙청에서 거행된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트루도 수상, 뒤에 광화문의 뒷모습이 보인다. [CP전송=본사특약].

## "헌법개정 계속추진"

### 트루도, 투쟁 선언

(서울=이태은 본보 특파원) 트루도수상은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에 불구,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말했다.

한국을 방문중인 트루도 수상은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8개주 대표들을 만나 협상할 가능성도 비쳤다.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로부터 인공위성으로 TV 중계된 회견에서 트루도수상은 포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헌법개정 작업을 조금도 늦추지 않는 강경자세와 함께 반대자들과의 협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는유연성을 동시에 보였다.

사전 준비된 수상의 성명서는 이번 판결을 헌법개정 반대자의 승리로 해석하는 반대진영측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다.

### 존레논 銅像제막

### LA市廳옆서 전시

오는10월10일 LA스트리트신페스티벌 개막에 앞서 9일 전비틀즈 멤버인 존·레논의 동상이 제막된다.

실물크기의 존·레논동상은 존·웨인등 유명인의 동상을 조각한 리빙스톤·스트롱씨가 만든것으로 7피트 높이에 5백파운드의 크기라고.

요꼬여사도 상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요지와 반응

연방대법원 판결 요지와 이에 대한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도 영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개정절차는 합법적이다(7 : 2로 가결).

● 그러나 헌법개정은 주정부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 캐나다의 정치적 관례요, 전통이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경우 온타리오와 뉴브룬스윅 2개 주만 동의했으므로 연방정부는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6 : 3으로 결정).

연방정부와 헌법개정안 반대 8개주는 모두 자기측의 승리를 주장하면서도 상호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서울에 가있는 트루도수상은 새 헌법안을 영국의회로 보낼 의사를 재차 밝혔으나 반대자들과의 협상재개를 위해 연방의회에서의 최종 토의를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윌렴·베넷 브리티쉬·콜럼비아주 수상을 리더로 한 반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독자적 헌법개정을 중지하고 주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만약 연방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국 런던에 가서 의회로비활동을 재개하고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은 대법원이 헌법개정 방식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온타리오주가 연방안에 찬성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례와 전통을 내세운 것은 국민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 죠·클락 보수당 당수는 트루도 수상이 8개 주정부의 반대를 묵살, 헌법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론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보수당은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 영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논평을 거부했다.

## "일방적 북한인정 않는다"

### 「트」수상 언명, 「남」총리와 2차회담서

(서울29일=이태은 본보 특파원) 트루도 캐나다 수상은 남북대화재개를 위한 전대통령의 제의와 한국정부 방침인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적극 지지했다고 한국측 대변인이 말했다.

28일 하오 남덕우국무총리와의 2차회담에서 트루도 수상은 "북한동맹국이 한국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캐나다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루도 수상은 장차 캐나다의 선박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한국선박의수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트루도 수상은 한국정부에 캔두원자로, 통신시설과 밀의 추가도입을 요청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서 활약중인 본보 이태은 특파원

남 총리는 트루도수상에게 현재 경북월성군에 건설중인 캔두원자로를 사용한 원자력발전소가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되도록 캐나다당국이 유의해 주기를 부탁했다고 총리실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측은 캐나다가 현재 미국이 한국에 장기간 외상판매를 하는 것처럼 유사한 조건을 수락한다면 밀 수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은 캐나다의 한국섬유수입제한조처의 완화와 한·카합동으로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석타개발 촉진을 요청했다.

남총리는 또 북한이 몬트리얼에 거점을 확보, 북미지역 공작활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 캐나다가 북한의 이에대한 어떠한 요청도 거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몬트리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있어 북한측이 이 기구에 대표단을 파견, 상주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종문화센터에서 남총리 주최로 열린 만찬회에서 남총리는 "지난 수년동안 양국의 교역량이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작년에는 7억달러까지 이르른 것이 감개무량하다. 올해는 10억달러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총리는 또 캔두원자로의 한국도입이 [illegible]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조는 곧 양국의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하는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답사에 나선 트루도 수상은 "양국은 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가져왔다. 캐나다는 지금도 전과같이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 우리는 한국이 이북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겪은 불행과 승리를 같이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도 수상은 또 "양국의 긴밀한 경제의 교류는 양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UNLIFE
백 웅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낙엽이 한잎 두잎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 오기전에
입는 보석, 밍크를……
올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 COLLAR MATCHING+CUTTING+ 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Daily Newspaper
2nd Class Mail No. 2962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5

# 이 외환은행장 전임
## 개점 앞두고 LA로 발령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미국내 한국계 은행의 대부금 미수사건(※한국일보-토론토 8월31일자)은 불과 1주일 후 개점하는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의 이장우 행장과 최승락 외환은행L.A.지점장등 미주지역 은행 간부의 인사이동을 몰고왔다.

24일 한국외환은행은 5명의 지점장급 은행간부에 대해 인사이동을 단행, 토론토 이장우 외환은행장과 최승락 L.A.지점장은 직접교체되었고, 홍희흠시카고지점장은 서울본점으로 전보되고 후임에는 이영택(본점업무개실 실장)씨가 발령됐다.

그리고 새로 지점으로 승격되는 시애틀지점에는 염동회씨가 지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진 대부금미수사건은 외환은행 LA 지점등 3개 한국계 은행이 78년11월 교포실업인 하버드·지씨에게 3,900만달러를 융자해주었고 그후 지씨의 상환이 부진하자 담보물 확보에 나섰으나 한일은행이 이미 차지한 사건이다. 외환은행은 1,500만달러를미회수했다.

이 사건은 80년4월 최지점장 부임후 자체조사에서 밝혀졌다가 최근 한국일보 LA판에 처음 보도됐다.

최지점장이 이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또는 최지점장이 3년 임기를 못다채우고 재임 1년4개월만에 토론토로 전임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캐나다외환은행」이라는 현지법인으로 오는 6일 개점하는 토론토소재 외환은행은 자본금이 불과 5백만달러, LA외환은행이 지씨에게 융자해준 금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소규모이다.

한편 25일 본사로부터 코멘트를 요구 받은 이장우 은행장은 부임 반년만에 LA라는 큰 지점으로 가는 이번 인사가 "그간 캐나다은행 설립에서의 공을 인정받는 영전"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서울 본부와 직접 통화를 못해 무엇라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은행 설립에만 정신을 쏟고 정식 은행장으로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물러난다"고만 말했다.

이행장은 이미 발령 받았지만 실질적 이동에는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외환은행장

이행장은 이미 지난 74~76년에 LA지점 차장으로 근무한바 있기때문에 LA의 실정에는 정통한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캐나다외환은행장으로 부임하는 최승락씨는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비엔나 사무소장, 남대문 지점장등, 외환은행의 요직을 두루걸친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청락 경제기획원장관의 실제이기도 하다.

◇뉴욕 코스모스의 시나글리아가 시카고 문전에서 멋진 오베헤드킥을 날리고 있다. 시카고의 톨 선수가 옆에서 주춤하고 있다.

# 시카고"스팅"승부킥 우승
## 「사커볼'81」 뉴욕"코스모스"눌러

26일(일) 토론토 엑시비션·스타디엄에서 열린「사커볼'81」(Soccer Bowl)결승전이 약 3만7천 관중의 환성과 열기 속에 벌어져 시카고 「스팅」이 뉴욕 「코스모스」를 승부킥스코아 1:0으로 눌러 챔피온이 됐다.

6천명 이상의 친 시카고 팬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관중은 시카고 스팅을 열렬히 응원하여 편파적 응원의 인상을 주었다.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으려고 기를 썼으나 전후반 90분, 그리고 연장전 15분동안 결승골을 얻지 못하고, 승부킥으로 승부를 가려야 했다.

각팀이 5번씩 찰 수 있는 승부킥에서 첫 3번을무위로 돌린 시카고는 4번째 슛에서 그라니챠가 낮게 찬 볼이 성공, 5번째 슛은 중견수 루디·글렌이 왼쪽편으로 찬 볼이 뉴욕 코스모스 골리 허버트·버켄마이너의 손을 맞고 들어갔다.

한편 뉴욕은 블라디슬라브·보지세빅만이 득점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수천명의 팬들이 스팅선수들에게 몰려들었고, 흥분된 관중들에 의해 축구네트가 갈갈이 찢기었다. 이러한 광경은 여태껏 엑시비션스타디엄에서 매우 드문 일로서 CFL의 그레이·컵 결승전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같은 열기는 NASL이 승부킥제도를 도입함으로 창출해낸 것이다.

한편 승부킥으로 승·패자를 가렸으나 이것은 양쪽팀 모두에게 씁쓸한 맛을 안겨주었다.

코스모스 코취 헨네스와 이스봐일러는 "경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미국의 축구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코취 윌리·로이도 와이스봐일러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시카고는 준결승전에서도 산디에고 속커스를 승부킥으로 이겼다.

시카고는 63년 베어스팀이 내쇼날·풋볼 리그에 우승한 이래 이번이 처음 우승이다.

이번 경기가 토론토에서 열린 것은 엑시비션 스타디엄이 관중동원 최고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바로잡음 —

29일 본보 1면「해외민원」관계기사중 「인정하는… 알려졌다.」까지는 편집상의 착오로 다른기사와 중복되었읍니다. 이 다른기사의 상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브라운,平等법안 서명
州정부 女고용자 혜택

〈LA— 〉 여성권리단체를 지지하는 에드몬드G.브라운주니어 캘리포니아주지사는 24일 주정부고용자의 봉급조정에 대한 평등규정을

〈독자의 소리〉

# 아들의 회심(回心)
## — 이태준 지음 소설 「상주」를 읽고

※이 글은 지난 9월14일자, 16일자, 17일자의 3회에 걸쳐 본보에 연재된 소설가 이태준씨의 단편 「상주(喪主)」를 읽고, 집안에 평화를 되찾은 익명의 할아버지가 본사에 보내온 편지이다(편집자).

오늘은 참 기쁜 날이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날이다.

이민이라고 와서 낯설고 물설은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일보-토론토」의 소설「상주」가 계기가 되어 자식을 찾았다.

한국에 있을 때는 효자는 아니었어도 그렇게까지는 매정스럽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천하에 자기처밖에 모르고, 늙은 부모는 벌이도 못해 궁색한데 돌보지도 않던 자식이「한국일보-토론토」를 읽고마음이 돌아섰다.

아주 잃어버린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와서 눈물을 흘리기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제가 잘못 했으니 앞으로는 열배로 효도를 하겠읍니다"고 하기에 나는 그만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냐?"고 되물으니 "한국일보 현지판을 읽고 마음이 변했읍니다"는 대답이 하도 신통하고 반가와서 "무엇을 읽고 마음이 변했느냐?"고 재차 물었더니 "「상주」라는 소설을 읽고 회개했읍니다"고 한다.

이렇게 반갑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기야 아들애도 마음이 악해서 그랬겠는가, 서로 바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줄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줄을 모르고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보니 서로 오해하고, 부모도 부모인 줄 모르고, 자식도 자식같지 아니하니까 가정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정도 없고 정도 없으니 혈육간인들 정이 있겠는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나라 생활이 그런 것이다.

하도 신통하고 기뻐서 나도 「상주」를 읽어보았다. 이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자식의 마음이 변할만 하다고 느꼈다.

김사장께 감사한다. 글을 써주신 분에게도 감사한다. 나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좋은 글을 신문에 많이 써서 지금 우리 한인사회에 우리집과 같은 집이 많이 있는 것같은데, 모두들 우리집과 같이 되었으면 한다.

타국에 와서 이얼마나 좋은 일인가! 예의범절로 하면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하여야 할 터인데, 자식들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으니 서신으로만 감사를 올린다.

우리 가정을 구해준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981년9월21일
소생 김 을림

# 소장·과장 인사이동
## 한일은행토론토사무소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에 인사이동이 있다.

김태현 소장은 10월1일자로 서울본사 국제부로, 김광현 과장은 본사 인사부로 전출한다.

김소장 후임으로는 한철환 부평지점장이 지난27일 토론토사무소장으로 부임했으며, 변과장 후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뱅쿠버 한일은행은 올해안으로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되나, 토론토는 아직 미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한국근로자 남녀차별
## 월수입 219.5달러

(서울28일=연합) 한국근로자들은 한달평균 25일 일하고 150,747원(미화219.5달러)을 번다.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28살 8달이고 1개회사 평균재임기간은 3년8개월이다.

28일 발표된 한국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5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작년말 총 3,219,442명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인구는 3천7백만으로 추산된다.

임금 이외에도 한국근로자들은 년 평균 268,842원의 각종 보너스를 받는다.

한편 남성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92,589원이고 여성근로자는 85,674 원으로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들은 남성보다 작년에 7.7시간이나 더 일했다.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23살3개월로서 남성근로자들보다 9살1개월 더 어리다. 그들은 또 취업계속기간이 2년3개월로 남성근로자보다 1년5개월이 짧다.

한편 판매,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24~40시간인 반면 기술, 경영, 사무직 종사자들은 206~13시간이다.

임금면에서는 판매, 서비스, 제조업이 기술, 경영, 사무직보다 훨씬 떨어진다.

〈생활정보〉

# 노년의 사회보장

(한국노년회 재무이사) 김 준 순

본지를 통하여 노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소개한바 있어 노년들이 다소나마 원조혜택을받아 노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있으리라믿는다.

특히 한국노년회(755-8079)는 노년들을 위하여여러가지로 편의를 보아주고있어 언제든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도움을 받도록 하기바란다.

예를들면 만65세가 되어 캐나다·펜숀을 청구할려면 이민후 만10년이 지나야하나 생활이 곤란한 노년들을 위하여 이민후 만 5 년이면 생활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소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리고 만65세가 되면직장을가진 노년들에게는 받는 금료와 세금내역등을기재하여 캐나다·펜숀을 청구할수 있다.

사무소는 60 St Clair St E.(본보 81년7월 24일자 참조)10층에가서 면접하는데 여러가지 소지할여권이라든가, 인슈렌스넘버같은것을 보여주는데, 될수있으면 영어가 능통한분과 같이가서 면접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 재산세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각신문 지상에도 소개된바, 작년 (80년도)에는 재산세 보조금을 연1회로 500달러와물품세 보조금도 50달러를 만65세이상의 노년들 에게 지급하였으나 금년(81년도)은 상반기에 작년의 반액인250불의 재산세 보조금과 50불의 물품세 보조금을 차급하였고, 하반기분은 9월21일까지해당되는본인들에게 신청용지가 우송되었으나 아직도 받지못한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데, 찾아갈때는 여권과 증빙물,(인슈렌스, 집세를낸 영수증)을 가지고 77 Bloor St W.965-8470 10층의 사무실에 가면 안내원이 잘 지도해 준다.

김준순씨

영어회화가 능통치 못한분은 영어회화에 지장이없는분과 동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빠른 소식!
놀리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 한국인의 섬
## 한국인이기가 부끄러웠던 — 여자 목사님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이기가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수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은 26년간을 수모당하는 조센징으로 살면서 조센징을 경멸하던 여학생이었다. 그러던 이여학생이 생애 큰 전기를 맞고 한국으로 건너갔다. 자기 뿌리에 대한 재발견을 위해 한국으로 신학공부를 하러갔던 이 여성은 한국인이기가 부끄러웠던 자신의 학생시절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영주하게된 이여성은 지금 40대 중반이 넘은 여자 목사가 되어 미국 교포사회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다.

"자녀들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 비록 한국의 현실에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한국이 부끄러운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은 어디에 내다놔도 부끄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키도록 해보십시오. 나는 한국인을 피하고 멸시하던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26세가 될때까지 한마디의 한국말도 하지 못했었읍니다. 그리고 한국인이기를 부끄러워하는 재일교포였읍니다."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이 여성은 정숙자 목사였다. 26세때까지 한마디의 한국말을 못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완벽한 한국말을하는 정숙자 목사의 회상이 럭도 인상적이고 감명깊어 인터뷰를 청했다. 인터뷰 청을 사양하던 정목사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어린시절 얘기가 미국에사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겠느냐는 말을 받아들여 모국을 부끄러워했던 젊은시절을 잠깐 들려주었다.

정숙자 목사가 자란 어린시절의 재일교포사회는 대부분 강제징용된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교포사회 수준은 무식한 편이었다. 전쟁이 끝난후 쓸모가 없게된 이들 징용자들은 가는데마다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직장에서도 쫓겨날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교포들은 자연히 법을 어겨서 살 방도를 찾을수 밖에 없었다. 한인사회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이 지배하게 됐다.

이런 교포사회를 가장 경멸하고 멀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배운 사람들"이었다. 이들 지식층들에게 교포사회는 창피스런 조센징의 표본이었다. 무식한 사람들을 피해 유식한 사람들은 한국사람들과 될수 있는대로 접촉을 끊고 숨어들었다.

정숙자 목사의 가정도 이런 지식인들중에 하나였다. 정목사 아버지는 징용으로 왔으나 어머니는 공부를 하러왔던 유학생이였다. 정목사 어머니는 법을 어겨사는 한인들을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한인들을 몹시 멸시했다. 한국사람들을 피해 지바겐이라는 아주 작은촌으로 숨어들어 농사를 지었다.

정목사 어머니는 자식들이 한국인 냄새가 안나도록 철저하게 한국을 잊게하는 교육을 시켰다. 한국말을 안가르친 것은 물론 자신이 갖는 한국인에 대한 경멸감을 딸에게도 물려주었다.

그러나 한국인이기가 부끄럽고 한국인을 경멸하던 10대소녀 정숙자양의 간절한 탈 한국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위일본 사람들은 정숙자양을 조센징으로 놀리고 돌질까지 하기도 했다.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면 정목사 가정은 당시 법으로 금지됐던 엿을 만들어 몰래 팔기도했다. 아버지가 검정엿을 흰엿으로 길게뽑고 어머니가 가위로 자르는 옆에서 다섯딸의 둘째가 되는 정목사는 엿을 종이에 싸면서 일본인에 대한 분노의 복수심을 깊게 다져갔다. "너희들보다 훌륭하게 되겠다"고 절치부심하던 정숙자양에게 생의 일대 전기가 찾아온 것은 한국에서온 미국선교사를 만나고 부터였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했던 이 미국인은 정목사 어머니에게 한국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자녀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시작했다. 항상 한국말만 쓰는 미국선교사의 자세가 정숙자양에게는 커다란 쇼크였다. 이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정양의 어머니도 차차 뉘우침의 문을 열기시작했다. 한국인이기가 부끄러워던 정숙자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와 도피의 잠에서 깨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정숙자양은 요꼬하마에서 신학을 한후 26세 되던해 한국신학대학으로 유학,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변혁을 시도했다.

"한마디의 한국말을 못했지만 깊은 회오와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한국땅을 밟았읍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간것은 모국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워서 재일동포 사회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였읍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땅의 불쌍한 동포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겁자가되고 말았읍니다. 기차가 왔을때 안탈수도 있었지만 탔기 때문에 내릴수가 없어서 여기 있게됐읍니다."

정숙자목사가 말하는 기차는 결혼일것 같았다. 4자녀의 어머니이기도한 정목사는 일본동포들에게는 비겁자가 됐다지만 몇안되는 한국의 여자목사 한사람으로 부끄러워했던 조국을 위해 자랑스런 봉사를 하고있다.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땅에서 살때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동포를 멸시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동포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할 지식인들일수록 이러한 경멸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적극적인 긍지를 가지고 이사회의 소중한 인간이 되면서 모국에 기여할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사람의 어머니가 한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번씩 강조하면서 말을 맺은 정목사는 자신의 사진을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적극성"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다.

K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암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10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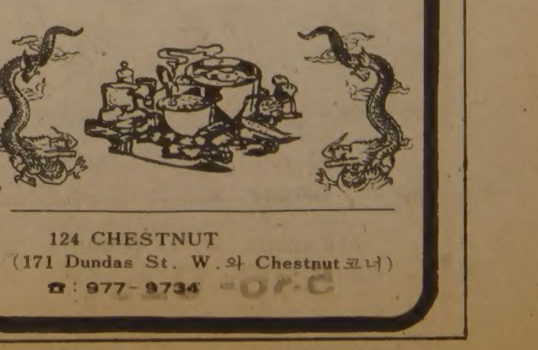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 <이태리 기행>

# 예술의 향기 ①

유 희 자

[편집자주] 토론토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올개니스트 유희자 박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이태리 피스토리아에서 열린 제7회 이태리안 올갠아카데미 에 다녀와 기행문을 보내왔다. 유박사는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 70년 UNIVERSITY OF OREGON에서 올갠니스트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은 후 71년 캐나다로 이민왔다. NHK교향악단과의 협연등 올개니스트로 유명, 한 유박사는 교회의 올갠반주등을 맡고 있으며, 74년부터기 씨알한국인학교를 설립, 교육자로 봉사해 왔다.

## 암스텔담에서 밀라노로

◇유희자 씨

토론토에서 6시간이나연착된 비행기는 꼬리에 꼬리를물고 문제를 만들어낼 것 같다. 3시간을 암스텔담 실홀 비행장에서 기다린후 다시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틈틈이 내려다 보이는 저아래 들판엔 질서정연히 꾸며진 농장들이보인다.

독일을 지나고 스위스를 지나 이태리 중북부에있는 역사적인 도시 밀라노로가는 것이다. 밀라노에서 또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피사탑으로 유명한 피사에가서 다시 기차를타고 "피스토이아"라는 작은 도시가 나의 목적지이다.

토론토에서 암스텔담 까지 내옆에는 중노년 부부가 탔었는데, 영어도 통하지않고, 또 나는 나대로 가지고간 잡지가 흥미로워계속 읽기만 하느라고 별로 대화를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밀라노로 가는비행기를 탔을땐 거의 10시간동안 말을않고 지난 셈이다.

이번엔 중년 남자분이동행하게 되었다. 화란신문을 읽는것을 보니 암스텔담이 본고장인 분인것 같다. "영어를 할줄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예."하고 시원스런 대답을 해준다. 잘됐구나 싶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눌수 있었다. 자기는 사업을하러이태리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 무슨 사업인가 물으니 이태리의 구두를 사다가암스텔담에 판다는 구두장수였다. "그럼 이태리어를할 줄 아십니까?"하고 물으니 자기는 독일어도 할줄알고, 불어도 할줄아는데, 이태리어는 다른 언어만큼 잘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어와 비슷한말이 많아서 약간 수업을통해약간 배운후 장사하는데는불편없이 통한다고 한다. 그러니 그분은 화란어,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모두 5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말이다.

홀란드에서는 국민학교 5,6학년에서 영어를 배우고, 중학에가면 독일어나불어중에서 선택해서 배우게 된다고한다. 자기네 나라는 작기때문에 외국과 사업을 하려면 여러나라의언어를 배우는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6년전 홀란드에 갔을 때 이나라 사람들이 언어에재능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식인뿐 아니고, 하물며구두장사를 하는분 까지도 5개국의 언어를 구사한다니, 참으로 놀랍고 경탄할만한 일이다. 교포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나로서 언어교육에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 주기도 한다.

나의 여행목적은 무엇인가? 반문한다. 16, 17세기 이태리의 올간음악과 하프시코드 음악을 공부하기위해 이태리에서 매년 열리는 특별 아카데미에 공부하러 오는길이라 했더니, 그것참 흥미있는 일이라면서, 자기생각엔 올간음악을 연구하기는 유럽이외에 더 적절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호응을 해 주었더니 이태리가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올간음악이 일찍 성행되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올간음악의 역사를 시작한곳이 이태리라고 반응을 해주며 생각되는것은, 아니 어찌하여 하다못해 구두장사를 하는사람 까지도 올간음악을 알고 그 역사까지도 화제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나 하는 점이다.

수백년을 두고 많은 예술작품을 길러낸 교회에서 항상 올간음악을 들으며자라온 이 사람들에겐 구두장사를하든, 밀크장사를 하든, 또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든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의 생활부분이 되었는가보다. 이게바로 국민의 문화를 척도하는 하나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유럽사람들이 역사와 문화가 짧은 북미지역의 사람들을 약간 얕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밀라노에 도착하고 보니 내 가방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할수없이 피사에 가는 비행기를 놓치고 암스텔담에서 다음에오는 비행기를 기다렸다. 기대했던것 보다는 달리 밀라노의 비행장은 꼭 한국의 옛날 김포공항처럼 작고 협소하였다. 영어로 으레껏 통하는 암스텔담 공항의직원들과는 대조적으로 밀라노공항의 이태리인들은 영어로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컴퓨터도 말을 잘 듣지 않나보다. 안내해주는 말이 이층에서 다르고, 아래층에서 다르다. 서비스도 좋지않고, 조직이 제대로 안되었구나 하는 것을 곧 느낄수 있었다. 신혼여행으로 캐나다와 미국을갔다온다는 젊은 신혼부부도 가방을 잃어버려 같이힘이 되어주었다. 비행기를 놓쳤으니 택시를타고 밀라노 정거장에 가서 기차로 직접 피스토이아로 가기로하였다. 정거장음 18~19세기의 유럽에서 손꼽는 상업도시의 경력을 나타내듯 웅장한 기둥과 높은천정, 조금 더럽긴 하지만 과거의 번창했던 시절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듯 하였다. 다행히 토론토공항에서 바꾸어 가지고온 이태리 돈이 있어서 밤10시에 떠나는 기차표를 살수 있었다.

캄캄한 밤중에 피스토이아라는 곳을 어떻게 알고 내릴수 있나 걱정을 하다가 옆에앉은 이태리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하였다. 영어가 하나도 안통하니야단났다. 나를 손으로 가리키고 피스토이아라고 하니 뜻을 알아차린듯 고개를끄덕이고 서로 미소를 짓는다. 지도를 펴놓고 손짓과 미소반으로 서로의 뜻을겨우통해 시골정거장 같은곳에 내려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다.

(계속)

## 방용성씨 통일자문회

# 참석보고

몬트리얼 노장회(회장정세봉)에서는 지난 19일, 6월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통일정책 자문회에 몬트리얼 대표로 참석했던 방용성씨의 참석소감과 경과보고가 50여명의 노장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7시 문화영화"한국의 고유음식"과"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5개국순방 기념화보"를 상영한후 박동열 간사의 사회로 교양강좌를시작, 정회장의 인사말, 김창훈 총영사의 축사에이어방용성씨의 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생기게된 동기와본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전망등에 대해 약 1시간의강연이 있었다.

## 교민동정

◆고종옥(신부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30일부터 10월4일까지 워싱턴 한인성당 연중피정(연례묵상회) 지도차 여행한다.

◆강공선(한인장학재단 이사장)=금년도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더욱 바빠졌으나 공익과 봉사로 보람 또한 더해졌다.

강씨는 이번에 또한 베타와이즈멘즈클럽의 기획부장직을 맡아 활약중이다.

◆강학수(강학수 종합보험경영)= 에이젠트로 활약해 왔으나 이제 자동차보험, 상점보험, 화재보험등을 추가, 본격적인 종합보험 에이젠트로 활약하게 됐다. 강씨는 한국및 미국보험회사에서 10여간 근무등 총 25년간 보험에 종사해온 보험인이다.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광고문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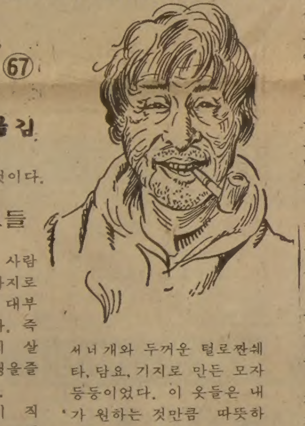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⑯7

팔리·모왓 원작, 천 제 중 옮김



당신이 듣는대로 곧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도두지 마십시오. 저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 백인이 있던곳에서돌아온지 이틀후에 드디어툭툭투가 나타났고, 그래서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결국은 사슴이었 답니다. 이 세상에서 사슴만이우리가 필요한것이 무엇인지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땅 어디 도 우리를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수림근처에 지어놓은 우리들의 캠프까지와서 우리를불쌍하게 여기고 나타나 주었답니다. 사슴속에 살고 있는 신,즉 툭토리악이 큰수사슴을 우리캠프로 보내어 아주가깝게 서있게해서 오텍이 미키의 작은 총알(구경22)이 든 총으로 아무렇게나 쐈는데도 잡을수가 있었읍니다.

그때는 봄철이었고, 늦은봄이될때 우리는 오소리가 앙그레얄락과 그의부인과 딸의뼈를 흩어놓은 오텍쿠마닉으로 돌아왔읍니다.

우리는 수림지대에서 죽은 우리식구들을 장사지낸것처럼 이들의 흩어진 뼈를모아 장사를 지내주었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는 귀신들이 쿠니이와 아노틸릭을 데려간 줄로만 생각했었읍니다. 지금 그들이 안전하게 잘살아 있다니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1947년 봄(즉 현재 오늘에 속하는)에 있었던 오호토의 기억이 끝이 났다.

단 몇십년 전만해도 북극 평원을 이동하던 수천명에 달했던 사람들속에살아남은 40여명중 12명이죽던 바로 그해 봄인것이다.

### X. 현재의 그들

현재의 이할미우트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러가지로 생활면에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즐거운 것들이다. 즉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살아남았다는 것과, 인생을즐기려는 마음가짐이다.

그외의 것은 현실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

어느가을날 윈디베이 에서리가 내려서 나는 겨울옷을 챙기고 있었다. 앤디와 나는 처칠을 떠나오기전에 벌써 준비를 다 했던 바였지만 그것은 몇개월전 일이었고, 그후 이곳에 온뒤로 나를 입양한 사람들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게 되었다.

지금보니 털로된 긴내복 서너 개와 두꺼운 털로짠쉐타, 담요, 기지로 만든 모자등등이었다. 이 옷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따뜻하지도 않고 추위를 막아줄성 싶지도 않았다. 잠시후 옷들을 다시 상자속에 집어넣고 내 의형제인 오텍한테로 쫓아 올라갔다.

"니펠로 아파포." 오텍은 내가 가까이 가자 그렇게 말했다. "내일 눈이올거야." 나는 그의말을 믿었고, 그래서 사실은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것은 좀 다루기 쉽지않은 문제였다.

나는 오텍에게 털옷이필요하다고 직접 얘기하기가 싫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입고있는 옷을당장벗어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의 형제 간이 라도 이사람과의 관계가 온여름내내입고있던 그의옷을 입고싶을 만큼 깊지는 않았다. 나는 능청을 떨었다.

"오텍! 너의어머니는 부락에서 제일 솜씨있게 옷을 만든다고 들었는데그게 사실인가?"하고 말했다.

천성적으로 겸손한 오텍은 역시 자기어머니의 솜씨를 인정했지만 슬픈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노인은 큰 사향소 에게도 잘 어울릴만한 옷을 지을수 있지만 누가그런귀신같은 거짓말을 합디까?"

나는 정책을 바꿨다.

"네가방금 말한것처럼내일은 눈이올게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우리같이 이 땅에서 어떤옷을 입을지 잘모르는 백인들은 아마 꽁꽁얼겠지." 하고 말하면서 적당하게어울리도록 몸을 떨어보이며 오텍이 어떻게 나올지 쳐다보았다.

(계속)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 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 A ,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5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 우황청심환 ● 우황 ● 사향
● 웅담 ● 녹용 ● 정주사 ●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한 국 관
냉면 ·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시입)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 집전화 : (416) 222-948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입주하셔서 애기와 살림해 주실분
구합니다.
☎ : 244−7303, 663−1053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경험있는 풀타임 헬퍼 구합니다 :
미시사가 지역
☎ : 822−4895(B), 823−2445(R)

도나스 가게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 구함
☎ : 881−2019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
월~금(아침9시~6시30분 저녁)
스타트 페이 $6.50
3개월 후부터 $7.
드라이빙 면허가 있어야 함.
연락처 : 624−0511(아침 9시~저녁6시30분 연락바람)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주말 파타임 헬퍼구함 :
마캄과 로렌스
☎ : 438−152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구함
미세스 김
☎ : 755−1746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학생헬퍼 구합니다.
☎ : 267−4770

##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 두채의 아파트 매매 : 좋은수입과
두개의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기회
☎ : 763−6287

FOR SALE
TRIPLEX집 : PRIVATE SALE(로얄욕×레이크·서)
교통 아주편리(서브웨이), 액설런트 콘디숀(Hot water heating by gas), 방11개, Moving out of city.좋은 모게지 가능. MR. ORVAL HANNA
☎ : 247−7161(B), 259−9913(R)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 530−0748 DAVID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다운타운 멀안에 있는 FAST FOOD STORE임
연 순이익 $35000, 부부가 하기에 아주 이상적임
주6일 영업, Asking $33000중 모게지 $7500가능함
☎ : 536−0463

빽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YOUR BEST DEAL
한국일보광고국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① 주매상 5500달러(프라자안에 있음)
② 주매상 3300달러(아파트 포함)
THE PERMANENT R. E.
☎ : 481−3443, 745−5483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옵게지 : 13¾%(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5−743−3152 MR. 유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MAN ST.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 ASKING $10000,
MACHINE $800. 2층 살림집있음
☎ : 1−387−3987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휴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9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번 달 원 (R)

##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촤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라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룡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 기 타

SOMÉ JEWELLERY소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캐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 모눈종이 위의 生 <211>

趙善作 作
禹慶熙 畫

### 돌개바람 불다⑫

종업원은 세면대에 열쇠를 꽂아 간단히 발[illegible]를 열었다.

나는 조그맣게 「고마와요」라고 말했고, 그는 곧 돌아갔다. 착잡하고 잠긴 심리더가 열리는 소리에 혹시 그가 깨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잠시 발[illegible] 밖에 서 있었다. 새로 두속한 옆 방의 손님들이 이따금씩 두런거리는 소리를 냈을 뿐 호텔 전체는 깊은 정적에 빠져 있었다.

그가 많이 설핏 들었던 잠을 깼다면 다시 잠들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 지리한 시간을 견뎠다. 유창훈 갈[illegible]은 머리에 두지 말자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밤의 수상쩍은 분위기에 유갈[illegible]이 깨어나라면 타격을 입는 쪽은 나보다도 오히려 그이일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나 호소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으며, 칠년 전의 사건부터 정[illegible]의 일까지 그의 죄상(罪狀)을 낳[illegible]이 벌어 [illegible]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선고와 함께 여자를 건드리는 책임피할[illegible] 동은 누구에게나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아니, 단[illegible]을 받아야 할 것은 오히려 칠년 전의 일이 더욱 심각하다. 적어도 그는 내게 다시 한번 확인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혼했어야 마땅했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그래야 할 만한 충분한 의무가 있었다. 수라장이 되어버린 결혼식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갈등따위는 함께 살긴 생애(生涯)에 비겨 하찮은 부스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자가 토라졌대서 금방 돌아서버리는 남자라면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적어도 [illegible]은 남자라면 평생을 걸더라도 그녀를 돌이켜야 옳지 않은가. 사랑에 있어서의 의무라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에게 나는 그것을 일깨워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유창훈 갈[illegible]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부하된 [illegible] 열의 남자가 깨어나지 않음으로써 면[illegible]죄([illegible])까지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는 내가 원하는대로 가만히 나를 안아야 한다. 나 그리하여 차갑고 [illegible]한 나의 육체로부터 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깊은 [illegible]를 깨우쳐야 한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는 발[illegible]를 밀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발안으로 한걸음 들어섰다.

그런데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자고 있지 않았다. 그는 깨어 있었다. 발[illegible]의 대각선 쪽에 [illegible] 비치는 전기 스탠드[illegible] 앞에 놓고, [illegible] 머리위까지 모포를 뒤집어 쓴 자세로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는 제자리에 섰다.

유창훈 갈[illegible]은 밤 [illegible] 어두운 부분에서 죄이 잠들어 있었다. [illegible]에 [illegible]서 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깨어 있으면서 무[illegible]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그는 내가 [illegible]에게 [illegible] 발[illegible]을 여는 소리로 가 [illegible] 않아서 [illegible]었으리라.

「마침내 오셨군!」

그는 [illegible]에서 나를 노려보며 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깨어 있으면서 기다릴는지도 모른다는 당연한 생각을 왜 못했었는가. 나는 스스로도 의아할 지경이었다. 깨어 있는 이상 나는 그의 얼에 누울 수가 없었다. 빠로에 서 있는 동안 차갑게 식은 [illegible]한 육체로 그에게 세례(洗禮)를 주겠다는 내 생각은 허무하게 스러졌다. 그리고는 다만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면 되는 한 마리의 가련한 노예처럼 머리를 떨구고 서 있었다.

잠시후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illegible]히 웃장 앞으로 가 스웨터를 꺼아 걸치고, 또 점퍼 하나를 빼어들며 내게로 왔다.

「나갑시다」

그는 [illegible]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거슬러 빠로로 나갔다.

## 도박꾼 고용 詐欺도박
### 6백여회걸쳐 1억딴 3명令狀

【大邱=聯合】 慶北도경은 25일 도박꾼들을 고용한뒤 자기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慶州市西部洞198 도원식당 주인 金尙俊씨(40)를 도박, 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朴영서씨(52·慶州市東部洞16) 등 8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도박전과 6범인 金씨는 지난79년5월 불구속입건된 도박꾼인 李기상(34), 崔영환씨(37) 등 2명을 일당10~20만원씩 주고 고용, 지금까지 식당손님을 상대로 매주 2회씩 속칭 「마이다신」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 20만원갖고 家出한 어린이들 父母품에

지난22일 「釜山으로간다」며 현금20만원을 갖고 집단가출한 서울中區會賢洞1街 83 鄭善陽씨(42·상업)의 2남 運慶군(11·南山국교5년)등 한동네 청소년6명이 25일새벽5시께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 "累積된 經濟弊習 과감히是正"

## 全대통령, 月例經濟報告會 주재 모두 어려움分擔 協調를

## 내년은 安定基盤 調整期

### 中小企業육성、部品生産 전문系列化로

### 景氣回復勢속 住宅·店鋪건설 위축

### 8월 動向보고 電氣器機·섬유류 增加…食料品 저조

全斗煥 대통령은 25일『내년은 우리경제의 안정기반구축을위한 調整期로서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근로자、개인모두가 어려움을 分擔하면서 협조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경제기획원에서 月例경제동향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경제기획원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에 차질이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지금까지 누적돼온 폐해를 과감히 제거하고 능률향상과 사회안정을 통해 80년대 제2의경제도약을 이룩하기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한것인만큼 정부와 국민전체가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것』이라고 말하고『5차계획은 誘導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있는만큼 관계부처는 널리홍보를해 국민들을 계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中小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서는 部品생산체제를 갖추어 생산을 전문系列化하면서 시설 근대화、경영합리화、규격화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部品생산의 전문계열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도 중요하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도와 국제경쟁력을 길러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또 釜山직할시 南區大淵洞의 도시새마을 공사례를 보고받은뒤『쓰레기를 완전폐기물과 再生사용이 가능한것으로 분리해 수거토록하는 방안을 다른 시에도 확산시켜 실시하는방안을 강구토록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企劃院, 經濟보고

夏閑을 벗어난 산업생산의 好轉을비롯 완만한 국내景氣의 회복세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점포등 건설은 더욱 위축되고있다。

25일 경제기획원이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8월중의 경제동향」(7월중)에따르면 건축허가면적은 주택、아파트등 居用이 27·8%、점포등 상업용이 18·4%로 각각작년 같은달보다 줄었고 공장등 공업용 건축도 증가세가 크게 鈍化、전체적으로 20·5%가 감소된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8월중의 산업생산은 컬러TV 냉장고 케이블線등 電氣機器 26·7%에 리야스 化纖系등 섬유류가 61·3%、의복류46·1%、銑鐵·鋼管등 제1차鐵鋼25·5%증가등에 주도되어 전반적으로 전달보다 16·2%가늘어 전년같은달의 弱勢를 벗어났으며 전달보다 出荷도 1·7%가 늘고 在庫는 0·1%감소했다。

도·소매판매액으로본 경기상황은 지난해 凶作등으로內需기반이 弱化된 음식료품이 계속저조한데반해 전기機器 家具類등 내구소비재가 늘어 전달보다 15·7%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8월들어 재정증권상환、夏穀收買를 위한 차입등 요인으로 總財政收支赤字는 1천60억원이 더늘어 금년들어 赤字누계는 3천9백37억원에 달했고 民間與信축소에도 불구하고 輸入둔화등 해외부문 통화환수축소로 總通貨는 금년들어 26·2%가증가했다。

輸入둔화로 경상수지적자폭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금년들어 8월말까지의 적자폭은 모두 35억7천만달러에 이르고 물가는 소비자13%、도매11·7%가 각각 올랐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보고에서 수출신용장과 수입장소추세가 앞으로의 경기전망에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종합株價、기계受注등 추이에 뒷받침된 先行경기지수 동향에비춰 앞으로의경기회복세는 보다가속될것이라고밝혔다。

#### 81한국機械展 참관

全斗煥 대통령은 25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주최로 汝矣島에서 열리고 있는「81한국기계展」을 약 1시간동안 돌아봤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金連珪기계공업진흥회장의 안내로 실내에 전시된 금속공작기계、자동차部品、섬유및 플래스틱加工기계、전기및 화학기계와 야외에 전시된 土木건설기계류、중장비등 출품된 1천6백여품목의 기기류를 차례로 살펴보고 출품업체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 平統政策諮問회의 女性委員들을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25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여성자문위원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 波、勞組탄압에 軍投入

### 首相、警告직후 特殊兵力 거리巡察

【바르샤바24日UPI AP=聯】폴란드정부는 24일 자유노조에 대해 對정부및 對蘇강경노선을 포기하고 온건정책을 추구하라고촉구하고 만일 계속 反국가·反蘇운동을 전개할경우 폴란드군의 탄압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루젤스키수상은 이날의 회에 출석、국가경제난에 대해 전국TV중계리에 연설하는가운데 자유노조의 온건노선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일부 특수군부대에 대해 경찰과함께『폭력과 반국가및 反蘇과격행동』을 분쇄할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루젤스키수상의 연설이 있은직후 바르샤바주요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하기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 波介入、蘇경제打撃 蘇首相천명

【모스크바24日外電=聯】소련 수상 니콜라이·티호노프는 24일『폴란드의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을 방문중인 오토·람스도르프西獨경제상은 이날 티호노프수상과의 1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그와같이 밝혔다。

티호노프는 또 소련이 폴란드에 무력개입했을경우 이로인해 소련이 겪을 對外貿易上의 타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람스도르프경제상은 전했다。

## 國會法개정 條文別審査 착수

### 民韓 "國政調査權 발동등 쉽도록"

運營委

국회는 25일하오 운영위원회를열고 民韓黨이제출한 國會法개정안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民韓黨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뒤 民正5、民韓3、국민1명으로 國會法개정 9人小委를 구성、조문별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民韓黨의 睦堯相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합리적인 의회민주정치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및 생산적국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안의 심사권을 소관 상임위에 부여하고 國政調査權의 發動을 용이하게 하며 본회의 開議시간과 발언자수、발언시간제한등의 불합리한 요인들을 시정하기위해 國會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睦의원은 또『현행 國會法은 立法會議에서 졸속처리된 법중의 하나로 지난두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있음을 느꼈다』며『立法會議에서 개정된 것이라해서 손댈수 없다는것은 논리상부당하며 개정에 여·야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14개條項의 改正이유를 설명하면서▲위원회 개회는 容易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 폐회중이라도 회기중인 경우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를 할수있도록 해야하며 ▲發言者數와 발언시간을 간사회의 협의로 결정토록하여 少數의사가 존중되도록 해야하며 ▲本會議開議를 하오2시에서 상오10시로 改正하려는것은 현행國會法이 겸직의원의 겸직충실을 기하기위함에 있지만 전체의원 2백76명중 겸직의원은 1백8명에 불과하고 그중 首都圈에 사무실을 갖고있는 겸직의원은 50명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의원은 국정심의가 고유업무인데도 이것이겸직으로 인해 하오2시로 늦추어진것은 직무유기라 할수있으며 생리적으로 상오에국정을 심의하는것이 능률적』이라고 설명하고『회의시간연장으로 야간국회가 열릴경우 2천5백77명의 국회직원거의가 비상대기하는등 경비가 많이든다』고 주장했다。

#### 9人小委 구성

이날 구성된 9人小委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在鴻 李漢東 沈明輔 鄭東星 朴敬錫(이상 民正)、金泰秀 睦堯相 劉洛根(이상 民韓)、金基洙의원(국민)

구독신청 배달사고

## 7小區 내달初 試錐

### 코암社 "石油賦存가능성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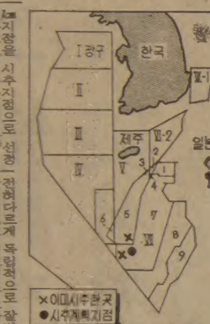
韓日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인 7소구에서 油田개발을 위한 시추작업이 10월초순께 착수된다。

7소구의 租鑛權者인 코암社는 제주도남방 약 3백30㎞인 북위 30도23분、동경126도27분 지점을 시추지점으로 선정하고 약 90일간에 걸쳐 총 4천1백60m를 굴착하기로 했다。

코암사의 美國코암會社인 해밀턴인터내셔널社의 스코트·커닝햄사장단 일행 4명은 24일 하오 朴鳳煥동자부장관을 방문하고 그동안의 物理探査결과와 앞으로의 試錐작업계획을 보고했다。

커닝햄사장은 코암사가지난 4월16일부터 5월7일까지 1천6백92㎞의 彈性波탐사자료를 분석한결과 석유부존가능성이 가장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주도 남방3백30㎞지점을 시추지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시추지점은 지난해 시추한 2개지점의 背斜구조와는 전혀다르게 독립적으로 발달되어있고 비교적 규모가 크며 바다가얕아 시추하기에 유리한장점등을 안고있다는것。




## 코스타리카 大統領 10월12일 韓國방문

◇까라소 大統領

中美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로드리고·까라소·오디오 대통령 내외가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공식訪韓한다고 외무부가 26일 발표했다。

까라소대통령은 訪韓기간동안 全斗煥 대통령과 頂上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협력문제와 국제정세를 포함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까라소 대통령의 이번 訪韓은 제5공화국出帆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첫번째 대통령이자 韓·코스타리카 양국이 지난62년8월 修交한 이후 돈독한 우호관계로 일관해온 사실과 관련、두나라간의 友好를 가일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防産物資 첫 展示會

### 彈藥서 艦艇·헬機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 사상처음으로 갖는 防産물자전시회(KODEX'81)가 25일 상오10시 서울永東의 한국종합전시장에서 周永福국방장관、尹誠敏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柳樸佑防産진흥회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됐다。〈사진〉

10월4일까지 열릴 이전시회에는 군복、개인장구류와 小火器、共用火器、각종砲、대전차무기、탄약、지뢰、폭탄、통신·전자장비、지상기동장비、함정및 헬機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1백여종 3천5백여점이 출품됐는데 일반시민은 오는 27일과 10월4일 양일간에 한해 상오10시~하오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 加 트뤼도首相 訪韓

피에르·엘리오트·트뤼도캐나다수상이 27일 상오11시30분 특별기편으로 來韓한다。

트뤼도수상은 3일간의 訪韓기간동안 全斗煥 대통령、南총리등 정부지도자들과 일련의 요담을갖고 韓·캐나다양국간의 經協확대、국제정세및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할예정이다。

캐나다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는 트뤼도수상은 南悳祐국무총리의 초청으로 來韓하는 트뤼도수상은 특히 南총리와의 양국首相회담을 통해 두나라간의 通商교류와 經濟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月城원자력발전소와 佛國寺、석굴암등을 시찰한뒤 29일하오 離韓할 예정이다。

트뤼도수상의 訪韓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상오11시30분=金浦着來韓▲하오6시=숙소에서 캐나다實業人접견 ◇28일▲상오9시45분=국립묘지헌화및스코필드박사묘소방문▲상오10시50분=南총리예방▲상오11시=환영행사(중앙청광장)▲하오4시=南총 양국총리회담▲하오5시30분=기자회견▲하오7시45분=南총리주최 만찬참석후 민속공연관람 ◇29일▲상오=KBS시찰후 釜山향발▲낮=月城원자력발전소시찰및 캐나다교민접견▲하오=佛國寺、석굴암관광후上京▲하오6시30분=트뤼도수상 리셉션▲하오8시30분=離韓

## 社告

### 日刊스포츠 오늘 創刊 12주년
### 日 호오찌新聞과 報道·事業제휴

한국일보社가 발행하는 자매지로서 국내유일의 스포츠전문지 日刊스포츠는 26일 창간12돌을 맞이했읍니다. 日刊스포츠는 애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스포츠、레저、연예등분야에서 더욱 재미있고 알찬 지면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日刊스포츠는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일보社와 오랜 제휴관계에 있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계열사인 스포츠전문지 호오찌(報知)신문과 취재보도、사업、광고활동에 걸쳐 제휴、최신뉴스와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으로 독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社
日刊스포츠

## 社會漫評

얼음인지…돌인지…

## 地平線

그간 同姓同本禁婚制 폐지여부와 전세권강화가 두드러지게 논의된 民法개정문제는 정부서 82년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24일 法務部가 밝힌것을 보면 개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사항속에는 그외에 不動産등기제도도 포함되어있다。▼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문제되는것은 등기자체가 公信力은없고 公示力만있는데서 소유권분쟁과 남의부동산을 사기로 가로채는 폐단들이 생기는데서 연유한다。그래서 전부가 등기에 公信力을 부여토록하기위하여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증여서류등)를 公證케하자는 주장을 하고있다。그런데 등기제도개선에서 빼놓을수없는것의 하나는 등기부와 지적도면을 一致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등기부상의 地番은 바뀌지아니하는데도 지적도상의 地番이 바뀌는 일은 흔하다。특히 다수의 소유자들이 공동지번안에서 이른바 持分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이 공동지번안에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자면 등기부상의 지번과는 다르게 표시된 地番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하니 새로짓는 집은 당연히 등기부와는 다른 지번위에 세워지는것과 같은 內容으로 신·개축허가를 얻을수밖에없다。여기까지는 별일이 없으나 새집의 준공허가를 마치고 이를 등기하는 단계에 이르면 심각한 문제가생긴다。▼새집의 등기는 당연히 건축허가서와 준공검사서를 근거로 하기때문에 등기부상의 지번과 다른 지적도상의 지번위에 새집이 들어선것으로 등기한다는수뿐。그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지번에는 생판알수없는 딴사람의 집이 들어앉아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된다。어쩌다 은행에 이집을 저당잡히려해도 이대로는 절대 불가능한것이다。아마 이런식의 어변이생겨날수있는 공유지상의 소유자는 全國에 수만、혹은 십수만을 헤아릴것으로 짐작된다。▼이 成長沮害현상을 바로 잡자면 지적도면의 지번과 등기부상의 지번이 一致하도록 이를관장하는 당국간에 매듭을 지어야한다。더 근본적으로는 등기부상 共有地를 分割하고자 할때에(이미 지적도상에는 분할한것같이 소유자별로 나뉘어져있다)이를 쉽게 할수있게시리 제도를 고칠일이다。첫째로 현재는 全共有者가 合意할때에만 분할등기가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全共有者와 담보권자들의 인감도장을 종이한장위에 찍게할수가 없으므로 단독분할의 길을 틀것、둘째로 분할비용이 대충 그 부동산을 두번 취득하는데 드는 금액과 맞먹는 비싼 수준이니 이것도 실비정도로 大幅낮추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3
은: 온스당 US 9.4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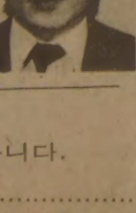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도넛샾: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2,500. 렌트: $1,225. 3년+3년옵션
가격: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5,500. 렌트: $750. 5년+3년
가격: $50,000
②주매상: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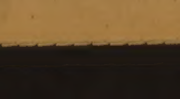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 $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부담)
ASKING: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사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사용해 보십시요.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wedding coverage
창의력 넘치는 사진들, 각종 앨범 자유선택, 캐나다 최대의 Lab에 현상의뢰, 정식교육받은 사진기사 담당.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S, 고국정경, 참신한 현대식 디자인등 장식용 사진다수.
(위탁판매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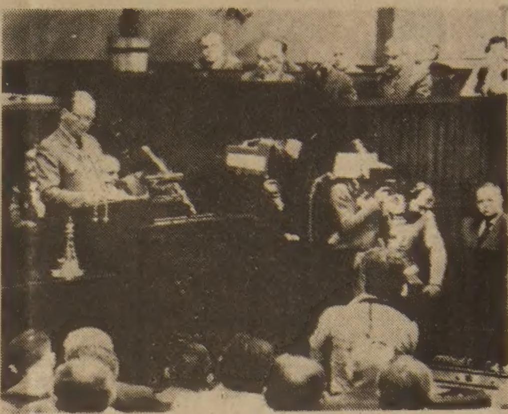
무지개 칼라-
438-4435

# 波勞組 뉴욕에 弘報室 개설

「폴란드 獨立勞組 친구들」命名…代表에 지그

## 유료會報로 情報제공

## 對西方窓口…美서지원



◇議會연설하는 波 야루젤스키首相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 수상이 24일 開院한 폴란드 의회에서 연설하고있다。 【바르샤바24日UPI電送=聯合】

【유엔本部25日=金泰雄특파원】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는 24일 뉴욕 파크路 21번가에 있는 연합교직자노조건물에 해외홍보실을 정식으로 개설했다。 솔리다르노스크가 뉴욕에 메뀌한 24일아침부터 교직자노조건물앞에서는 폴란드 공산당을 지지하는 미국사회당데모꾼40여명이 솔리다르노스크를 반대하고 미국자본주의가 폴란드에서 재생하는것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 첫會報"바웬사、2차勞組대회 美대표 참가토록 비자요청。"

솔리다르노스크를 규탄하려고 벌인 이데모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솔리다르노스크를 오히려 TV에 선전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만 한 것같다。 솔리다르노스크가뉴욕에 홍보기구를 개설하는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사회적문제가 있었던것 같다。 기자출신인 35세의 지그문트·푸르제타키에비치는 뉴욕에 온지 한달만에 솔리다르노스크와 미국을 연결하는교량기구를 만드는데 성공한것이다。

폴란드이름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미국사람들은 이름 첫머리글자만을 따서 그를 「지그」라고 부른다。 과로의 빛이 역력한 지그는 흥분된 어조로 첫 기자회견에서 『홍보실의 개설을 선언한다』고 말하고 『솔리다르노스크의 소식을 미국인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홍보실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소련의 타스통신과 폴란드의 관영통신 PAP그리고중요미국 미디어와 在美폴란드신문방송기자 70여명이 모인 기자회견에서 지그는 폴란드식 영어로 설립취지、자금조달문제、솔리다르노스크와의 관계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홍보실개설은 폴란드를 반대하는 反국가및 反정부행위가 아니냐』고 폴란드관영 PAP기자가 신랄한 질문을 던지자 폴란드계 미국기자가 『당신은 경찰관인가』라고 반박、PAP기자가 무안을 당했다。

지그는 홍보실 설립에 관한 질문이외에 폴란드사태전반 그리고 미국정부에대한 질문을 받는것을 사양했다。 이유는 텔렉스설치가 이틀밖에 안되어 최근의 사항을 모르기때문이라고 알지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있을수 없다는 얘기다。

지그의 홍보실은 외국특파원들의 힘만으로 커버할수없는 폴란드사정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뉴스와 해설을 회보형식으로 각뉴스미디어와 노조 그리고 관계기관에 유료로 공급한다。

그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않고 솔리다르노스크 홍보실을 재정적으로 도울수있는길이 된다。

홍보실이 배포한 첫 회보내용은 『노조지도자 바웬사는 폴란드당국에 美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 (AFL·CIO) 회장 레인·커클랜드등 미국노조지도자들이 제2차 자유노조전국대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

지그는 홍보실이 폴란드노조운동의 해외대리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폴란드 독립자유노조의친구들」이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로 법인체등록을 마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했다。

임원으로는 흑인민권운동가이며 필립·랜돌프연구소의 의장인 베이어드·러스틴과 워싱턴에 있는 폴란드시계센터 회장 타에데우스츠·발렌도프스키등을 포함시켰다。

이·법인체는 실질적으론 솔리다르노스크와 관계를 갖고있으나 법적으론 솔리다르노스크와는 무관한 독립된 기구로 「홍보실」을 꾸민셈이다。

아마도 미국과 폴란드의 현정권과의 관계에、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에 휘말리길 원치않기때문에 취해진 조치인것같다。

『CIA와 관계가 있는가』라는 뜻의 질문도 있었지만 그질문은 묵살되었다。

지그의 실질적인 후원기관은 AFL·CIO (美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와 앨버트·생커가 영도하는 연합교원연맹(UFT)인것같다。 그리고 세계제2차대전후 공산당을 반대해 망명한 폴란드계미국인들이 도움을 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그는『자유노조에 동정적인 미국인들이 월1만5천~1만8천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밝혔다。 지그는 부인、두아들과 함께 바르샤바주재 美대사관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뉴욕에건너왔으며 현재 친구집에서살고있다한다。

그는 자유노조 홍보실이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사무실개설을 폴란드정부에 사전통보하지는 않았으나 폴란드정부도 홍보실설치에 관해 알고있으며 뉴욕주재 폴란드총영사도 폴란드와 인민을위한일이며 반국가도 아니고 반정부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측근은 『지금은 지그가 바르샤바로 돌아갈수있을지 모르나 소련군이들어오면 그는 영영 미국에 살아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지그가 설립한 선전기구가 홍보실아닌、경우에따라선 정치기구로 장래폴란드의 노동자와 이민들을위해 큰공헌을할수있을 것 같기도하다。

# "佛、나토의 充實한 一員"

## 미테랑會見 東西분쟁땐 中立안지켜

【파리24日AFP=聯合】 미테랑프랑스 대통령은 24일 소련의 군비증강으로 야기된 위험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자신이영도하는 사회당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충실한 가맹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힘의 균형만이 평화를 유지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지난5월의 치열했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첫번째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의 현 정부가 좌익정부이긴 하지만 東西분쟁이 야기될 경우 결코 중립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며『프랑스는 자명한 원리로서의평화주의를 결과로서의 평화와 혼동하지 않는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힘의 균형만이 평화를 유지케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기때문에 유럽에서 과도하게 군비를 증강해온 소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것이며 당장 군비축소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나토가맹국으로서의 『권리와의무』는 잘알고 있지만 프랑스는 소련圈과도 『상호이익을 얻을수있는 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사우디판매 警報機 美조종사 同乘요구

【워싱턴24日AFP=聯合】 레이건美행정부는 對사우디 AWACS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판매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및 사우디조종사들이 AWACS에 동승할것을 문서로 공약해줄것을 사우디에 촉구했다고 한 행정부소식통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은 美정부가 사우디에대해 사우디가 美조종사들의 AWACS탑승을 문서로 공약하지 않을경우 AWACS의 對사우디판매가 실현불가능하게 될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美조종사들의 AWACS탑승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있다。

# 美·蘇 11월 軍縮협상

## 헤이그·그로미코合意 유럽核武器제한討議

【유엔本部24日聯合】 미국과 소련은 오는11월30일 제네바에서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 제한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헤이그 미국무장관과 그로미코 소련외상이 24일 발표했다。 헤이그장관과 그로미코외상은 23일 레이건 미행정부출범후 8개월만에 처음으로 4시간여동안 계속된 美·蘇외상회담을 끝낸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럽배치핵무기제한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최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양국정부를 대신하여 이 협상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1월30일 열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美·蘇쌍방이 국제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같은 협상의 중요성을 믿고 적절한 합의도달을위해 노력을 아끼지않기로 다짐한다』고 밝힌후 『미국협상수석대표는 닉슨 前미행정부에서 對蘇미사일협상에 협력했던 폴·H·니츠 前수석국방차관이、그리고 소련측 수석대표는 U·A·크비친스키가 각각 맡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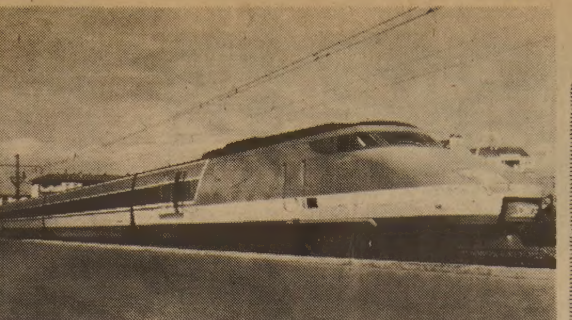
美·蘇핵제한협상은 유럽에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려는것으로서 소련은 동구에 SS20미사일 약 2백50기를 배치한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미국은 이에맞서1983년말까지 서독 이탈리아 영국에 중거리 퍼싱및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레이건미행정부 출범이후 핵무기제한회담에 관한 美·蘇간의 최초의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美·蘇양국이 협상재개일자와 장소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대상이될 무기의 범위에 관해서는 계속 異見을 드러내고있어 이점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쟁의 초점이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東西유럽에 배치된 美·蘇양측의 중거리核미사일 즉 戰域核軍(TNF)을 제한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반면 소련은 유럽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기와 核潛艦까지 포함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 비행기에 挑戰 '날으는 列車'

## 佛TGV、파리~리옹間 4백27㎞ 2시간40분走破



◇시속2백60㎞로 달리는 세계에서가장빠른기차TGV。

## 세계最高시속… 3백14㎞까지 可能

## 安全운행위해 커브·건널목등 없애

### 승객전용 電鐵…국내航空社선 손님뺏길까 걱정

【파리=金聖佑특파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인 프랑스의 TGV (고속열차)가지난9월22일의 개통식에 이어27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시속 2백60㎞로달려 4백27㎞의 파리-리옹간을 2시간40분에 주파할 이TGV의등장으로 프랑스는 철도기술을 세계에 자랑하고 철도산업은 다시한번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파리-南東部線은 우선 4분의3가량만 새 철도가 부설되고 나머지는 구철도를 임시로 이용하는것이어서 전구간의 공사가 마저끝나는 2년후의 83년 가을에는 서울-부산간의 거리와 거의 비슷한 파리-리옹간을 꼭 2시간에 달릴 예정이라 TGV는 우리에게도 선망의 기차가 아닐수 없다。

TGV는 파리-리옹간뿐 아니라 이幹線에서 갈려나가는 브장송行、제네바行에도 운행을 하게되어 프랑스 남동부의 11개도시를 매일 38개의 TGV열차가 연결、縮地를 한다。 TGV는 파리-리옹간을 1시간10분 단축하고 (지금까지 가장 빠른열차가 3시간50분) 파리-제네바간을 4시간15분의 거리로 (지금까지는 5시간45분) 당겨 놓았다。

프랑스에서 TGV가 맨처음 구상된것은 15년전인 1966년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斜陽産業인 철도에 투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대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반은 1971년 TGV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 TGV001호의 기관차 견본이 나왔다。

새로운 철도 부설공사가시작된것은 1976년 12월이었다。 TGV는 1978년 시운전에서 시속2백60㎞를 내고 1981년에는 새철도의 구간에서 시속3백14㎞까지 달렸다。 마침내 1981년 2월26일 TGV는 시속3백80㎞라는 세계신기록을세웠다。 시속 3백80㎞라면 초속1백m의 속도다。 44만㎞의 사운전을거친 TGV는 실제운행에 있어서는 최고속도를 안전속도인 시속 2백60㎞로 정했다。

고속기차는 지금까지 여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이었다。그래서 TGV가 나오기전까지는 일본의 신칸센(新幹線)이 세계에서 가장빠른 기차였다。 1964년에 개통된 신칸센은 현재 東京-博多까지의1천63㎞를 6시간45분에 달린다。 이신칸센의 운행최고시속이 2백10㎞여서 이제는 TGV에 시속50㎞가 뒤지게 되었다。

다른나라에서 고속열차가 실제로 운행이 되지않는 가장큰 이유는 커브진 철도부설의 난관때문이다。 프랑스는 새 기관차의 개발과함께 철도를 새로 건설함으로써 꿈을 이루었다。

새로 부설된 TGV의 철도는 커브를 가급적없앴기때문에 파리-리옹간의 종전거리 5백2㎞를 거리 자체에서 90㎞나 단축을 시켰다。 건널목을 일절 두지않은것은 물론 高架道나 다리의수도 가능한한 줄여 전체 건조물의 길이가 철도 全長의 0·5%밖에 안된다。

기관차가 1천분의 35의가파른 勾配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너끈히 올라갈수 있기때문에 터널을 파지않아도 되었다。 路盤의 기초공사도 특수하게 했다。 TGV계획의 총경비 83억프랑 (약1兆원) 중 새 철도공사에 투자된 돈이 65억프랑에 달한다。

TGV는 처음에 가스터빈으로 계획했다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電鐵로 바꾸었다。 비행기에 밀려났던 기차는 TGV의 등장으로 다시 비행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거리가 5백㎞내지 6백㎞이내에서는 TGV가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고 프랑스國鐵에서는 선전한다。 그래서 프랑스국내선의 국영항공회사인 에르·앵테르에서는 비행기로서는 황금노선인 이 구간의 승객이 반으로 줄것이라고 걱정이다。

사실 기차로 2시간대라면 천리길의 리옹은 파리의 교외나 다름없다。

流線型의 기관차에 8개의 객차를 단 주황색의 TGV열차는 도합 3백86석 (1등 1백11석、2등 2백75석)이다。 요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파리-리옹간의 2등이 1백67프랑 (약2만원)。 시속2백60㎞의 속도를 낼때의 안전감은 종전의 기차가 시속1백60㎞로 달릴때와 마찬가지다。 속도 때문에 화장실의 배출식 변기가 마땅찮아 특수한 수거식변기를 장치한것이 색다르다。 이TGV열차는 승객전용으로만 쓰이고 화물은 구철도를 이용하게된다。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TGV의 성과에 따라 파리-보르도의 西南部線은 물론 북쪽으로 브뤼셀까지 확장할생각이다。 최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대처 영국수상간에 다시 논의된 英佛海峽의 터널공사가 성취되면 파리-런던은 TGV로 2시간30분거리의 이웃이 된다。

◇中共 위성 發射 첫 公開 지난20일 한개의 로키트로 3개의 인공위성을 동시 발사한것으로 보도된 中共이 24일 관영新華社통신을 통해 공개한 당시의 발사광경사진。 【北京24日AP電送=聯合】

# 게릴라4명 投降

## 駐佛 터키領事館 人質劇종막

【파리 25日UPI·AFP=聯合】 파리주재 터키領事館 인질사건은 25일 『아르메니아 해방비밀군』(ASALA) 소속 게릴라3명이 인질60명전원을 석방하고 경찰에 투항함으로써 사건발생15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부상으로 앞서 투항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범 3명은 사건발생 약15시간만인 이날상오2시 (한국시간상오10시) 인질극을 끝내고 경찰에투항했다。

게릴라들은 투항전 소지하고있던 기관단총과 수류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루를 거리로 내놓고 이어 문밖으로 걸어나와 경찰유개트럭에 실려갔으며 곧바로 인질들이 줄지어 나왔다。

## 사우디 保安軍공격 이란巡禮者들 負傷

【런던24日聯合】 사우디의 聖地 메디나市에 있는 안나비회교사원에서 24일 사우디보안군과 이란 순례자들간에 유혈충돌이 발생、약20명의 이란인들이 부상했다고 런던에서 청취된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사우디군인들이 사우디경찰에의해 2명의 이란불구자들이 체포된데 항의、사원안에서 데모를벌이던 수십명의 이란순례자들을 공격했다고 전하고 이로인해 이란인순례자 20명이 부상하고 이중 12명은 입원했다고 말했다。

## 外信안테나

◆美上院 폴란드支援案가결

美上院은 23일 『중대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폴란드에 5백만달러상당의 식품및 의료품을 지원키로 가결했다。 【워싱턴=UPI】

◆IPU總會反植民결의안

쿠바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제68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는 23일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의 영향력이 강력히 작용한 가운데 이스라엘 남아공화국 미국을 규탄한 반식민주의결의안과 엘살바도르、칠레、우루과이의 인권탄압을 비난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9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아바나=로이터】

◇한때人質미끼 協商벌이는 게릴라 파리주재 터키영사관을 습격한 아르메니아게릴라가 24일 한 여자인질을 방패로삼아 창가로나와 경찰과 협상하고있다。 【파리 25日UPI電送=聯合】

## 海外토픽

### 美의女王 5명뽑아

★미스유니버스올해부터

미스유니버스대회조직위는 금년부터 각대륙의 고유미를 감안한 5명의 『미스 여왕』을 5대주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

대회조직위원회측은 이에 따라 오는11월 런던에서열리는 81년도 대회부터 5명의 『미의 여왕』을 아프리카·유럽·미주·아시아및 오세아니아대륙에서 각각 1명씩 선발、이들에게 타이틀과 함께 부상 1천파운드(1천8백30달러)씩을 주게될 것이라고 전했다。【런던=AP】

### 시험관아기 量産

★올해4개국서 20여명

금년은 영국·호주등 세계 3~4개국에서 모두 15~20명의 시험관아기가 출생、『시험관아기풍년』이 될것이라고 영국과학전문지 네이처지 최근호가 보도。

이잡지는 패트릭·스텝토박사와 함께 세계최초로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케임브리지대학의 R·G·에드워드박사의 말을인용、이같이전하고 금년이 시험관아기출생의 『전환점』이 될것이라고 강조。【런던=UPI】

## 오늘의 世史 <26일>

▲뉴질랜드自治선언 (1901)
▲法院조직법공포 (1949)
▲東·西獨간 통상협정조인 (1949)
▲西獨, 재군비선언 (1953)
▲문경시멘트공장준공 (1957)
▲崔秉宇특파원 金門島근해서失踪 (1958)
▲버마, 無血쿠데타로 네윈大將首相취임 (1962)

## 메아리

극장앞에서면 선전간판 다음으로 크게 보이는것이 「미성년자 입장금지」라는 경고다。 사춘기 10대의 출입을 이 경고문은 엄격하게 가로막고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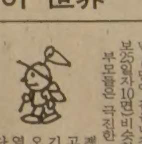
우리 미성년들은 이런 「금지」 말고도 많은「禁止」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무엇을 하라」보다 「하지 말라」는 언제가 어린이교육의 지표가된지 오래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세계를 다룬 한 표본조사가 이 현실을 뒷받침해준다。

그조사에서 지적된점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해서는 안될일」의 종류가 매우많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생활규범이다。 이런 마땅한 규범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어린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에게 꼭 복종하는것을 美德으로 삼는다。

미국과 유럽의 어린이들은 「마음 먹으면 어떤일도 할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신감이 넘친다。 반면 한국의 아동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데서 수동적인 자신감을 찾는다。 그러니 가장 으뜸 가는 걱정거리가 언제나 학교성적이다。

부모에의 종속감이 강한데도 자기고민을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은 서양에 비해 뒤진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78%이상의 어린이가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절반가량만이 어머니를 상담역으로 삼고 있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소외감」의 소지가 여기서 엿보인다。

## 어린이 世界



10대 고교재수생에서 5살 꼬마까지 한동네소년 6명이 집을나갔다가 사흘만에 돌아왔다。(본보25일자10면)비슷한일이 잊을만하면 또생긴다。 부모들은 극진한 애정을 쏟으면서도 자녀의세계를 지나치게 모르며 키우고있는것은 아닐까…。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철부지들에겐 오히려 「귀찮은 압박감」으로 역작용을 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어린이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며 자라가는 미완의 인격이다。「우리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고 뒤늦게 애태우기보다 더욱 이해있는 돌봄이 필요할것같다。

어리벙벙하게 돌아온 아이들을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법석을 떠는 어른들의 「무의미한 관심」은 이제 없어져야 옳다。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부모가 다독거려주면된다。 이것이 사랑이요 교육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선 먼저 자녀를 알고 배우려는데 어른들의 마음이 쏠려야 하겠다。


## 한국인의 통닭집

NEW OPEN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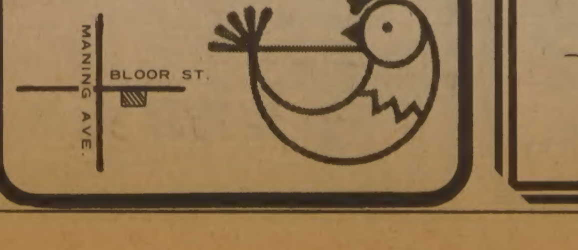
한국사람 입에 맞는 통닭구이 집을 개업했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통닭
●각종 Meat취급(불고기, 갈비포함)

※거리 불문코 배달함(단, 파티용 샌드위치 주문은 하루전에 연락을 요망)

미스타 김
미스타 리 올림

658 ½ BLOOR STREET W.
전 화 : 537-0432




##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판며 봉사하는 도매상"

| | | |
|---|---|---|
| Duracell Battery Cor D | 12/2's | 24.70 |
| AA | 12/2's | 20.00 |
| 9V | 12/1's | 22.00 |
| AAA | 12/2's | 20.00 |
| Duracell Watch Battery Sales,Too | | |
| Colgate Tooth Pasted (Reg & Mint) | 24/50ml | 12.00 |
| | 24/100ml | 27.80 |
| Crest Tooth Paste | 12/175ml | 20.00 |
| Head & Shoulder | 12/175ml | 11.00 |
| Scope Mouth Washer | | 5.70 |
| Canada Dry Lemonade | | 5.70 |
| Ginger Beer | | 5.70 |
| Nestea | | |
| Fruit Tella All Flavour | 36/30¢ | 4.99 |
| M & A Ribbon Licorice | 48/10¢ | 2.99 |
| Rowntree Halloween Treats | 16's PER BAG | 2.00 |
| Sponge Toffee | 48/20¢ | 6.35 |
| Just A Drop | 3G | .99 |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 개 업 인 사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및 개인문제 심리상담을 시작하였읍니다.

사무시간 : 토요일(예약요망)

장 소 : SUITE 406
600 Sherbourne St.
(at Bloor)
TORONTO, ONT.

예약전화 : (705) 549-3454
(Collect Call무방)
토요일에 한하여
(토론토) 923-3336

철학박사 심리학자 김 보 경 배상

# IOC와 한국 <2>

## 런던올림픽때 첫出戰
## 한국加入、브런디지씨 幕後협력

여러분야의 많은 국제기구 가운데서도 IOC는보수적색채가 특히 강한 기구로 널리 알려져있다。 노령화, 귀족화되었고, 현실감각을 외면하고있다는 소리도 자주 들려왔다。 IOC위원은 되기도 어렵지만 일단IOC위원이라는명예를 얻으면 자퇴 또는 IOC의 해임징계를 받지않는한 사망할때까지 그지위를 누릴수있다。 (72년 이후에 선임된 IOC위원들은 72세가되면 정년 퇴임토록 규약이 개정됐다)

IOC가 시대에 맞지않는 인사들로구성되었고 너무 늙었다는 일부의비판에 대해 IOC는 의연한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상업주의가 판을치고, 정치적 압

### 47년 스웨덴總會때 加入

력이 가중되고있는 이때에 시대의 흐름만 좇아가다가는 올림픽 운동 자체가 밑뿌리부터 흔들릴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태도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것이 변한다』 지난해에 킬러닌 경의 후임으로 IOC위원장이 된 환·안토니오·사마란치 (61·스페인)씨는 경직화된 IOC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아마추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에 IOC가갖고있는고유권한의일부를양도하고, 올림픽90년사상처음으로 여성IOC위원의 선임을 추진하고있으나 당장 IOC의 보수적 색채를 파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IOC는 전통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중견급 위원이 막강한 힘을 갖고 기구를 이끌어왔다。

프랑스·英國·美國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등이주동이되어 첫IOC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럽勢가압도적인 발언권을갖고있다。개인자격 위원에의해 운영되는 IOC가 유럽의거물급 스포츠 인사들에의해 주도되고 있다고한다면 각국 올림픽위원회 (NOC)의 모임인 ANOC는 中南美勢가 아프리카·아시아의 자원을받아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이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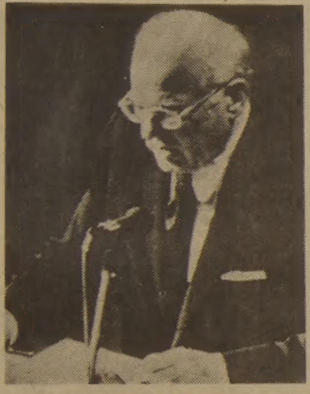
IOC가 90년 가까운역사를쫓는동안 위원장은 7명밖에 교체 되지않아, 이점에서도 IOC의 보수성이 강하게 반영되고있다。초대 비켈라스 위원장 (그리스)이 2년후 쿠베르탱낭(프랑스)에 위원장 자리를 넘기자 쿠베르탱위원장은 1896년부터 1925년 까지 30년 가까이 權座를 누렸고 3대 앙리·라투르위원장 (벨기에)은 1925년~1942년까지 17년간 위원장의 자리를 지켰다。

4대에드 스트렘씨(스웨덴)가 52년에 82세의 고령으로 사임 하자 에이버리·브런디지 씨(미국)가 5대 위원장으로 취임, 72년 뮌헨올림픽때까지 20년간 IOC 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6대인 에이레의 킬러닌 위원장을 거쳐 현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바통을넘겼다。

현 IOC 위원 82명 가운데 70대이상이 15명이나 된다。

올림픽 유치도시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회의결 사항이지만 IOC 회장단과 함께 가장중요한 기능을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IOC 집행위원회 이다。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얻기 어려운 문제와 올림픽 대회에서 일어나는 「비기술적인논쟁」을 조정,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되어 「IOC의 중추신경」으로 불리고 있다。따라서 IOC 회장단과 집행위원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설득하느냐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79년 몬테비데오 81차 IOC총회서는 日本의 기요가와씨 (淸川正二) 가 아시아지역서 처음으로 제3부위원장에 선임되어 자동적으로 집행위원 멤버가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현 집행위원을 국적별로 보면 스페인 소련 日本 코트디브와르 (이상 회장단) 뉴질랜드 루마니아 파나마 인도 벨기에。



◇1952년부터 20년간 IOC를 이끌어온 아마추어리즘의 기수 에이버리·브런디지 위원장。70년 뮌헨 총회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모습。

한국이 日本의 사슬을벗어나 독립한후 IOC와직접 관련을 맺은것은 47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서열린 제40차 IOC 총회때였다。

이총회서 한국은 KOREA라는 호칭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NOC로 버마 이란 과테말라 파나마등과함께 IOC에 가입,국제스포츠무대서 새로운 장을 펼치게되었다。한국은 IOC에 가입함으로써 이듬해 런던서열린 제14회 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워 출전하게되었다。

IOC가 한국을 승인하기에 앞서 국내에서는 呂運亨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올림픽위원회 (현KOC의전신) 가 발족됐다。이무렵 올림픽대책위원회의 田耕武부위원장이 제40차 IOC총회에 참석하기위해 출국했다가 비행기사고로사망하는 사건이있었다。孫基禎씨에의하면 한국이 IOC에 가입한 이면에는 에이버리·브런디지씨의 힘이 컸다는것。

【金在契기자】

# 經理團 先頭그룹에
## 韓化의 5投手난타 3—1

實業야구 9일째

經理團이 韓國化粧品의 5투수를 적공, 3—1로이겨 4승2패로 실업야구 후기2차리그의 선두그룹에 뛰어올랐다。

經理團은 25일 仁川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9일째 경기에서 6회초1死후 8번 趙鍾奎의 좌전안타, 2死후 1번 丁震鎬의 좌중월적시2루타로 1점을 선제하고 9회초2死후 4번 張孝祚의 포볼, 5번 禹京夏의 중전안타, 6번 金大鎬의 좌전결승타와 韓國化粧品좌익수의 실책으로 2점을 추가 3—1로 완승했다。

韓國化粧品은 선발 金炳日을 비롯 金基鐸 鄭彦明 金暎河 黃圭奉등 5명의투수를계투시켰으나 經理團에 적시타를얻어맞고 9회말 겨우 1점을 만회했다。

韓一銀行은 許哲九의 4회말 2점호머를비롯한 10안타로 第一銀에 3—0으로승리했다。韓一의 사이드 드로어 盧相守는 산발4안타로 완봉승을 기록했다。

◇제9일전적

제일은 (4패) 000 000 000—0
한일은 (2승3패) 000 201 00×—3
◀홈런=許哲九 (4회·2점·한일)
경리단 (4승2패) 000 001 002—3
한국화장품 (4승2패) 000 000 001—1

## 홈즈 11월에방어전
### WBC 헤비級걸고 스나이프스와 對戰

【피츠버그24日UPI=聯】프로복싱 세계권투평의회 (WBC) 헤비급챔피언 래리·홈즈가 오는 11월6일 피츠버그에서 레넬드·스나이프스와타이틀전을 가진다고 피츠버그·포스트거제트·지가24일보도했다。

# 1년생 朴東洙 호투로 東亞大 延世꺾고 패권

## 7회 嚴泰燮솔로로 機先
## 趙城玉은 9회초 決勝點 2—1

추계大學야구決勝

馬山商高출신의 1년생 언더드로어 朴東洙의 호투에 힘입어 東亞大가 延世大와의 금년시즌 3번째 전국대회 결승대결에서 승리, 62년 추계티그 우승이후 19년만에 대회패권을 차지했다。

25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81년 추계대학야구리그최종일 결승전에서 東亞大는朴東洙의 절묘한 피칭으로 延世大의 36타자를 9회동안산발5안타、5四死球、1희타、5삼진、플라이14, 땅볼5개、1실점으로 선방하는한편、7회초 嚴泰燮의 우월솔로호머와 9회초 2死후 1번趙城玉의 좌전결승타를 비롯한 2안타、1도루로 2—1로 힘겹게 승리、우승했다。東亞大는 금년 釜山시장기 대회와 추계리그를 석권、2관왕이 되었다。

금년시즌에서만 3번째결승에서만난 양팀은 6회까지 0의행진을 계속했다。

선공 東亞는 1회초 선두타자 趙城玉이 내야안타를때리며 득점기회를 만들었으나 3번朴榮泰의 2루수 플라이로 잡히는 병살타로 찬스를 잃었으며 4회초에는 5번嚴泰燮, 5회초에는 8번全大永이 각각 병살타로 득점기회를 망쳤다。게다가 2회초에는 2死후 8번全大永이우전적시타를때려 2루주자金相勳이 홈까지 뛰어들다가 延世우익수 張勳의 호송구에 분사했으며 6회초에도 2死후 朴榮泰의 중전적시타로 2루주자 李東玩이 무리하게 홈까지 뛰어들다 역시 태그아웃, 적수비를 얇보다 연달아 득점찬스를 날려보냈다。

東亞는 7회초 1死후 5번 嚴泰燮이 延世1년생 선발 金鎭元과 겨루다 우월선제·솔로호머를 때려 1—0으로 리드。

東亞의 1년생 우완 언더드로어 朴東洙에게 6회까지 2안타로 눌리던 延世는 7회말반격에서 선두4번 金泳均이 우전안타、2死후 7번 金太榮이 좌전적시타를 때려 동점을 만들었다。

◇최종일결승전

동아대 000 000 101—2
연세대 000 000 100—1
◇홈런=嚴泰燮 (7회·동아)

◇태그 아웃 延世—東亞의 결승 대결。2회초 공격에 나선 東亞의 선두 4번 金相勳이 포볼、후속 땅볼로 2루에 대기하다 8번 全大永의 우전 적시타로 홈까지 달렸으나 延世 우익수 張勳의 호송구로 태그아웃、선제점의 기회를놓쳤다。

## 吳民根 4회KO勝
### 東京서 하야까와에

【東京24日聯=聯】프로복싱 WBA 페더급 세계랭커 韓國의 吳民根은 24일 도오쿄에서 벌어진 10회논타이틀전에서 日本의 드래곤·하야까와를 4회에KO로제압했다。

또 韓國의 洪慶洙도 이날 페더급 경기에서 日本의 도사·젠을 판정승으로 눌러 이겼다。

## 中高태권도
### 국가대표 全雄煥 印海鎮일방공략 준준決에

제17회 협회장기쟁탈겸 제8회 전국중고개인 태권도선수권대회 4일째 경기가25일 국기원에서 속행, 남고부 플라이급 4회전서 5회 세계대회(11월) 파견 국가대표 全雄煥 (동대문상) 은 印海鎭 (서울체고) 을 일방적으로압도하고 준준결승에 올랐다。남고부 미들급의 金振基 (동대문상) 는 高相(시온고) 을, 라이트미들급의 張益壽 (천호상) 는 洪龍皓 (경문) 를 각각2회30초만에 RSC승、준준결승에 진출했다。

## 蹴球지도서 出刊
### 崔殷澤씨 집필로

축구한국대표 팀과 청소년대표팀코치를 역임한 崔殷澤씨 (漢陽大감독) 가 「현대축구의 이론과 그실제」라는표제의 축구지도서를 펴냈다。

이저서는 崔씨가 77~78년 西獨 퀼른스포츠대학에서 1년6개월에 걸쳐 유학생활을 하는동안 수집한 현대축구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하여 한국인의 체질에맞는 훈련방법등을 소개하고있다。

# 朴喜範씨夫婦 유서발견
## 藥物中毒확인 同伴自殺 결론 檢察

忠南大 전총장 朴喜範씨(59)와 부인 蔡洙喜씨(53)부부의 사인을 수사중인 大邱지검 林然奎검사는 25일朴씨부부가 유서를 남겼고 사인이 약물중독이라는 병원측 검시결과를 근거로 동반자살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朴씨부부가 숨지던날 朴씨의 조카 尹根任씨(32)가 朴씨부부의 유서를 발견, 유족들에게 넘겼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朴씨부부가 지난23일 동반자살하기로 합의한후 약명미상의 약을먹었거나 주사를 맞고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동반자살로 결론을 내린이유는◀유서가있고◀죽기3일전인 지난21일 朴씨가 평소 가정문제에 관해 잦이 의논해왔던 이종동생 文鐘桂씨(60·金泉고속버스터미널소장)를 大邱자택으로 불러 사후 뒷처리를 부탁했으며◀이날 朴씨의 고향인 金陵郡鷹悔面道岩洞으로 돌아간 文씨가 지관 (地官·풍수) 을데리고 친척들과 함께 朴씨의 전처 무덤에서 2백m쯤 떨어진 선산에 2기의 묘소를 마련한 점등을들고있다。

한편 朴씨부부가 숨지기3일전인 지난21일 이종동생 文鐘桂씨 (50·金泉市平和1洞) 에게 받아쓰게한 약력메모가 25일 낮 처음으로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文씨에따르면 朴씨가 자신이 죽은뒤 부고와 비문으로 사용하라면서 또박또박 불러주는 것을 처음에는 부인 蔡씨가 받아쓰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중단해 자신이 받아 썼다는 것이다。

면지지에 볼펜으로 쓴 이메모에는 생년월일·출생지·학력·경력·자택·가족상황등과 함께 발인장소·장지등이 기록돼 있으나 발인시간은 비워두었다。

朴씨는 맨끝에 6개 중앙일간신문까지 열거하고 직접 「○○신문사 사회부장귀하」라고 쓴 봉투도 미리 마련해두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朴씨부부의 동반자살이 확실해짐에따라 시체해부등은 하지않기로했다。

朴씨부부의 장례는 5일장으로 오는28일 상오9시 자택에서 영결식을 가질예정이다。

[빈소] 朴喜範교수부부의 빈소가 마련된 大邱市 東區 晩村1동651의1 자택에는 申一澈 啓明大총장、徐明源忠南大총장、李鍾律慶北도교육감등이 보내온 조화바구니몇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는가운데 4남매의 유자녀와 10여명의 친지들이 상가를 지키고있었다。

25일상오 5남매의 자녀들중미국에있는 장남(34)을 제외한 차남 (31)、군복무중인 막내아들 (21) 등 4남매가 비보를 듣고 집에 달려와 넋을 잃은듯 울음조차 잊고 비통해했다。

5평가량의 서재에 차려진 빈소에는 평소 朴씨부부가아껴쓰던 저서와 논문、책자들이 그득했고 각종 상패와 표창장등이 즐비해 고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 당신이 잃어버린20달러짜리지폐를 찾았어요"
"내가 가진20달러짜리 지폐라곤 바지호주머니에있는것뿐인데"
"제가바로 거기서찾았다는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기도전에 찾아내는짓은 그만좀했으면좋겠어"

## 김치독에 毒藥넣어

【仁川=聯】경기도華城경찰서는 24일 시누이를 살해하기 위해 시누이집의 김치독속에 극약을 넣은 韓相淑씨(47·경기도華城郡楊甘面古今1里409)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20일 상오10시께 이웃에사는 시누이 강금용씨(78)가 피사리를 하지않는다고 꾸짖은데 앙심을 품고 강씨집 김치독속에극약을 넣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이날하오 김치독속에 극약이 들어있는것을 모른 강씨등 4명이 이김치를 먹고 일제히 심한 복통과 구토증세를 일으켰다。

## 中共·北傀鴨綠江에 새水力發電所 建設

【서울=聯】中共·北傀가 合資로 건설하는 鴨綠江유역의 「태평灣水力발전소」가 최근 中共의 遼寧省관전縣에서 기공되었다고 23일 北京방송이 보도했다。

鴨綠江의 水力을이용할 이 발전소는 지난2월15일中共·北傀「鴨綠江水電理事會」의 결의에의해 合作건설키로 한것인데 준공예정은 오는85년도라고 이 방송은밝혔다。

## 테니스 男子代表團
### 데杯진출戰 출전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산 레모에서 열리는 82년도 데이비스컵쟁탈 세계남자테니스 선수권대회 본선진출결정전 한국—이탈리아전에 출전할 남자대표선수단 6명 (임원2·선수4)이 24일하오 출국했다。

# 流星의 賊 <19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明暗 ⑫

『그 어른의 강직함이 어떻게 간신(奸臣)들이 우글거리는 조정에서 견디어 낼 수 있었겠소』

하고 이수상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순신이 합격도 동구비보(童仇非堡)에 권관(權管)으로 부임한 것은 32세。권관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일개 소대장의 직위이다。그러나 이순신은 불평하지 않고 3년동안 그 직책을 충실히 지키다가 35세 때 돌아와서 훈련원의 봉사(奉事)가 되었다。봉사란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계장(人事係長)쯤 되는 직급이다。

그때 서익(徐益)이 병조정랑(兵曹正郞)이었다。정랑이면 요즘으로 말해 중앙정부의 국장급(局長級)이다。서익은 이순신보다 세살 위였지만 직급은 7등급이나 높았다。이순신이 중위(中尉)에 해당한다고 하면 서익은 대령(大領)이나 준장(准將)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서익이 자기 아는 사람을 참군(參軍)으로 승진시키려고 하자, 이순신이 단연 거부했다。인사원칙(人事原則)에 어긋난 정실인사(情實人事)였기 때문이었다。서익은 상관으로서의 위세를 내세워 이순신의주장을 꺾으려고 했으나 끝끝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때부터 이순신에게 적의(敵意)를 가지게 되었다。

수년후 이순신이 전라도 발포의 만호로 재임중 서익은 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으로서 내려와 터무니없는 트집을 부려 허위보고 함으로써 이순신을 파직시켰다。

『그러나 곧 억울하다는 것이 판명되어 다시 직책이 복기는 했으나 그건 3년 전에 있었던 봉사직 (奉事職)이 었소。38세에 봉사라니 그게 웬말이오。사리사욕만 좇고 있는 서익은 35세때 벌써 병조정랑 (兵曹正郞) 이었는데 말이오』

이수상이 이처럼 투덜대면서 이순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다음 다음으로 열거했다。그리고는

『맑고 곧은 사람이 행세할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

『영감님의 애기를 듣고 보니 자신이없어지는구료』

홍계남의 실감이었다。

『보아하니 젊은 이는 얼굴이 준수하고 오복이 두루 갖추어 진 사람 같소。그만한 일에 의기저상해서야 쓰겠소。이참군도 견디고 참으며 살았다오』

하고 이수상은 이순신에 관해 마음과같은 얘기를 했다。

『그어른이 두번째 봉사직을 맡았을때였소。어느날 우연히 건천동(乾川洞)의 댁으로 갔었죠。그때가 추석이던가? 이봉사는 남보자 대단히반기며 쌀한말과 굴비 한두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였어요。굳이 사양하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가지않으면 버려야겠다는 겁니다。까닭을 물었더니 이통을 밝힐순 없으나 어떤 고관댁에서 보내온거라고했어요。그런데 그걸 도로 돌려보내면 괜히 청렴(淸白)을 흉내는것 같고, 집에 그냥 두긴 어쩐지 불결해서 망설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그러니 내가 그걸 가지고가면 봉사님께서 마음이 꺼림칙한것도 없다는 간곡한 부탁이지 뭡니까。아무튼 그어른은 그렇게 마음을 쓰는 분이었읍니다。강직하고 자상했읍죠』

# 趙名人 실리작전
## 名人戰방어2局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과 도전자 가또·마사요시(加藤正夫) 9단이 격돌하고있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주최 제6기 名人戰도전7番棋제2국 이틀째 대국이 25일상오9시 京都다이몬지야(大文字屋) 호텔에서속개됐다。

도전자 가또9단의 봉수점白56이 개봉되면서 시작한 이날대국은 하오5시까지 대체로 예상대로 진행됐는데 [illegible]로한 실리작전을 폈고 白은 68로 걸쳐 중앙을 두껍게했다。

이에대해 趙名人은 1시간 4분의 장고끝에 黑69로 두었는데 가또9단은 白70으로 반발、또한차례 파란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 대낮 4人組강도
### 가정집 20만원털어

25일하오2시40분께 서울江西區禾谷4洞504의43 郭敬烈씨 (41·공무원) 집에 20대 4인조 강도가침입、현금과 수표등 20여만원을털어 달아났다。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김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439-6717 김 남 집

Arlington FURNITURE COMPANY LTD.
PHONE ORDERS ACCEPTED

3 COMPLETE ROOMS OF FURNITURE
12PC. BEDROOM
7 PC. LIVING ROOM SUITE ONLY $849
5 PC. DIN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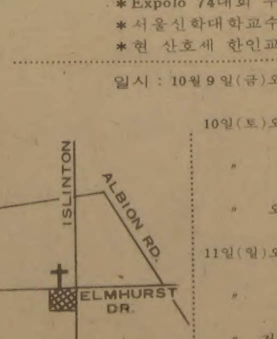
이 광고를 갖고 오시는 분은 Special가격으로 드립니다.
1610 GERRARD ST. E. (AT COXWELL)
HOURS : 월, 목, 금 : 오전9시~오후9시
화, 수, 토 : 오전9시~오후6시
461-1103

대부흥사경회

주 제 : 내영혼을 살찌게 하자(시23: )

강 사 : 김 석 규 목사
＊충무로 성결교회 담임
＊Expolo 74대회 부회장
＊서울신학대학교수및 학장대리
＊현 산호세 한인교회 담임

일시 : 10월9일(금)오후7 : 30 (전도집회)
10일(토)오전6 : 30 (새벽기도)
〃 낮10 : 30 (성경공부)
〃 오후7 : 30 (전도집회)
11일(일)오전6 : 30 (새벽기도)
〃 낮1 : 30 (주일예배)
〃 저녁8 : 00 (전도집회)
12일(월)새벽6 : 30 (새벽기도)
〃 낮10 : 30 (성경공부)
〃 저녁7 : 30




담임목사 : 김 용 진
전 화 : 745-7370

성 도 교 회
87 ELMHURST DR.

# 쏟아진「海外民願」

## 「횡령逃走」債務관계가 으뜸

### 4일만에 무려 1百여件

### 搜査力 못미쳐 아쉬움도

### 治安本部 안내窓口 문열자마자 滿員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민원이 예상외로많고 그양상도 다양하며 심각한것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는 추세에 대비해서 치안본부가 마련한 해외민원창구에는 개설4일만에 무려 1백여건의 크고작은 민원이 접수돼 치안본부는 이에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에 바빠졌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민원중에는 우리나라의 수사력이나 행정력이미치지 못해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줄수없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지적, 그런경우라도 해당외국에서 취할 적법절차를 가르쳐 주는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21일부터 24일 하오6시까지들어온각종민원은1백여건으로 그 종류는 소재확인이56건으로 가장많았고 사기가32건, 기타 8건등 모두96건이었는데 대상국은 미국이 절반이넘는 54건, 濠洲와 캐나다가 각각 8건, 기타나라가 24건등이었다.

치안본부는 민원창구가 개설되자마자 이같이 민원이몰리는것은 해외민원이 그만큼 많고 그해결도 지극히어렵다는전망을 보이고있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같은 해외민원은 더욱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민원를 내용별로 보면 거액을 횡령 또는 사기한후 해외로 도주한사람의 소재확인 또는 해결방법의 호소가 많았고, 해외취업 근로자의 소식문의, 해외변사 사건의 진상확인, 외국회사에 사기당한 경우, 국제결혼후 타국으로 전근한 남편의 소재확인, 외국에간후 돌아오지 않는 부인과의 이혼문제등 다양했다.

또 상담전화중에는 외국상사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않는다고 호소한것도있는데 치안본부는 이에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갖춰 한국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이를근거로 형사사건으로 취급, 인터폴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西獨으로전근한후 5년동안 편지만 보내올뿐 생활비를 한푼도 보내주지않는다는 호소도 있었으며, 일본에간 부인이 6개월이넘도록귀국하지않아 확인해본결과 일본인과동거중인데 이혼할수 없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또 서울서 대학을졸업, 고급선원으로 濠洲에간 아들이 현지에서 죽었는데 타살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호소도 있었다. 치안본부가 전문으로 이를 현지경찰에 조회한결과 7시간만에 타살혐의가 없다는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또 사채3천만원을 안은채 미국으로 달아난 사람을 찾을수 없느냐는등 부채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는데 경찰은 이같은 경우 본인의 여권번호나 주거지만이라도 알아야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면서 기초자료를 알아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신고받은 해외민원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를 갖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등적법절차를 우선 밟도록 조치했고 20여건은 해결해주었으며 10여건에 대해서는 상대국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같은 해외민원이 국내에서와는 달라 인터폴을 통해야 하는데다가 강제력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필요한 근거서류를 갖추게해 현지경찰과 협조하면 사건성격에따라 상당한효과를 낼수있다고 말하고있다.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4일상오 大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 국제郵便요금 引上

## 10월부터 전화·電信요금도 함께

체신부는 만국우편연합(UPU) 협약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약에 따라 국제통신요금 체계를 전면조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체신부는 이번 요금조정은 환율이 변동된데다 국제항공 및 선박요금과 상대국 또는 중계국의 취급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취해진것으로 국제우편요금은 5년10개월만에, 국제전신전화요금은 1년8개월만에 각각 재조정됐다고 밝혔다.

24일 체신부가 밝힌 인상내용을보면 항공봉함엽서는 현행 2백60원에서 3백50원으로 오르며 항공통상우편물은 10g을 기준 ▲日本, 臺灣, 홍콩지역은 2백60원에서 3백70원 ▲중동및 유럽지역은 3백60원에서 4백40원 ▲美國지역은 3백10원에서 4백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엽서는 선편의경우, 1백60원에서 2백50원으로, 항공편은 日本지역이 1백90원에서 2백80원으로, 美國, 유럽, 중동지역이 2백40원에서 3백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선편통상요금은 20g기준으로 편지는 2백30원에서 3백40원으로, 인쇄물은 1백10원에서 1백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소포우편물은 1kg기준으로 ▲日本지역은 선편일때 2천9백30원에서 4천원, 항공일때 3천2백30원에서 4천2백원 ▲美國지역은 선편일때 1천2백80원에서 2천4백원, 항공일때 3천4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제전신전화요금의 경우, 전화는 번호지정통화, 3분1통화일때 ▲日本은 3천7백80원에서 4천4백70원 ▲美國은 5천2백20원에서 6천1백80원으로 오르게되며, 전보는 1어당 ▲日本이 2백10원에서 2백40원 ▲美國은 2백90원에서 3백50원 ▲홍콩은 2백30원에서 2백70원으로 인상된다.

텔렉스역시 1분당 日本은 2천1백원에서 2천4백90원으로, 美國은 1천7백40원에서 2천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제우편요금 (요금단위=원)

| 종류 | 인상요금 | 종전요금 | 지역 |
|---|---|---|---|
| 항공봉함엽서 | 350 | 260 | 세계전역 |
| 선편통상서장(20g기준) | 340 | 230 | 〃 |
| 선편통상인쇄(20g기준) | 170 | 110 | 〃 |
| 항공통상우편(10g) | 370 | 260 | 日本·臺灣·홍콩·마카오 |
| | 400 | 290~310 | 동남아·中共 |
| | 440 | 310~360 | 북미·中東·유럽 |
| | 470 | 360 | 중남미·東歐·아프리카 |
| 선편소포(1kg) | 4,000 | 2,930 | 日本國 |
| | 2,400 | 1,280 | 美國 |
| | 3,300 | 2,560 | 사우디 |
| | 3,800 | 3,360 | 英國 |
| 항공소포(500g) | 4,200 | 3,230 | 日本國 |
| | 4,800 | 3,400 | 美國 |
| | 5,100 | 4,870 | 사우디 |
| | 5,800 | 5,630 | 英國 |

◇국제통신요금

| 지역 | 전보(1자·통상) 인상 | 전보 현행 | 텔렉스(1분) 인상 | 텔렉스 현행 | 전화(3분) 인상 | 전화 현행 |
|---|---|---|---|---|---|---|
| 日本 | 240 | 210 | 2,490 | 2,100 | 4,470 | 3,780 |
| 美國 | 350 | 290 | 2,060 | 1,740 | 6,180 | 5,220 |
| 臺灣 | 240 | 210 | 2,060 | 1,740 | 4,260 | 3,600 |
| 홍콩 | 270 | 230 | 2,060 | 1,740 | 4,080 | 3,420 |
| 西獨 | 430 | 370 | 2,440 | 2,060 | 7,320 | 6,180 |
| 英國 | 610 | 520 | 2,060 | 1,740 | 4,890 | 4,110 |
| 프랑스 | 450 | 380 | 2,440 | 2,060 | 7,320 | 6,180 |
| 泰國 | 340 | 290 | 2,060 | 1,740 | 4,890 | 4,110 |

## 원발 슬리퍼발견 현장1백m맨홀서

속보=상경 여대생 朴尚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朴양의 오른쪽 슬리퍼도 시체발견현장에서 1백m 떨어진 큰길 맨홀에서 찾아내 범행이 이곳에서 이루어진것을 뒷받침했다.

오른쪽 슬리퍼는 시체발견현장쪽의 공터 채소밭과 차도경계사이에 붙어있는 길이 1m가량의 맨홀속에서 발견됐는데 왼쪽 슬리퍼 발견지점과는 1백20m 거리였다.

이에따라 경찰은 범인이 사건이전에도 이주변 여관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고 발견지점부근의 삼정장여관 종업원 3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 高校·교회친구 집중探聞

### 女大生피살사건 刑事70명 수사支援

속보=釜山산업대생, 朴尚恩양 피살사건수사본부는 25일 서울江南경찰서를 제외한 시경산하 22개경찰서에서 강력반형사 3명씩을지원받아 수사력을 보강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수사력을 숨진 朴양의 高校때 친구와 교회친구등을대상으로한 탐문수사에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하오 9시 20분께 숨진 朴양을 불러내기위해 전화를걸어온 여자목소리의 주인공을찾고있으나 이날 현재 아무런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여자가 공범이거나 단순히 심부름을 했건간에 이사건을 해결할수있는 결정적인단서를쥐고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朴양의 해외연수 동기생들을 불러 조사해온 경찰은 24일 숨진 朴양과 모대학 C군(21), 모대 B양(21)등 3명이 연수기간중 삼각관계에있었고 서로가 다툰적도있었다는 새로운사실을 밝혀내고 이에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 政治하는스타「메르쿠리」

### 再選노려 希총선에 出馬

영화「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스타 멜리나·메르쿠리(55)가 오는 10월18일에실시될 그리스의회총선에서의 재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에 나섰다.

열정가득히 그녀 특유의미소를 띠고 금발을 휘날리며 선거구를 누비고있는 메르쿠리는 그리스의 주요 야당인 범헬레닉사회당의 원내부총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그녀의 黨이 승리하면 정부각료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아테네=AP】

## 5명 詐欺혐의拘束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5일 충치수복제인 아말감을 국내에서 제조, 미국에 수출한뒤 다시수입해 외제인것처럼 속여팔아온 의약품수입상 大洲물산대표 金泰德씨(38·서울江東區蠶室5洞잠실아파트 1501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金씨에게 아말감을 공급해준 한국치제공업주식회사대표 황종섭씨, 생산부장 정동익씨, 영업부장 확인찬씨등 5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이들은국산 아말감보다 수입아말감이 비싼값에 잘팔리는데착안, 지난 5월1일 황씨가자신이 미국뉴욕에차린 유령회사 에이스 코멘트사에 아말감 3백온스(6백만원상당)를 수출한뒤 金씨가 이를 다시수입하는 숫법을쓴뒤 에이스알로이라는 상표를붙여 전국치과 재료상과 병원등에 비싸게 팔아왔다는것이다.

## 나의 이력서 윤치영 (58)

〈題字·尹致暎〉

### 總力外交의 첫結實

### 마침내「유엔韓委」入國시키는데 成功

### 李박사와 筆者등「先建國」의견 제시

48년1월8일 유엔韓國臨時委員團(UNTCOK)이 來韓했다. 이들의 내한은 곧 建國의 進一步를 해주는것이다. 당초 미국정부는 한국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또 소련을 신사적인 對話의 상대로 여겼었다. 때문에 하지가 이끄는 美軍政당국은 모스크바三相회의 결의를 이행한다고 민족진영의 熱火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美蘇共同委를 진행시켰으나 소련에게 질질끌려다니는 꼴이되었다. 엎치락 뒤치락끝에 47년9월 61차회의서 소련측이 美蘇兩軍철수를 제의함으로써 저들이 赤化馬脚을 드러내자 10월17일 마셜국무장관은 信託통치없는 한국의 즉시독립을 주장했다. 이어 11월14일 유엔총회는 한국總選案, 유엔위원단設置案, 정부수립후 兩軍동시撤軍案등을 가결했다.

유엔임시위원단의 來韓은 南韓에서의 정부수립을 적극 추구해온 李承晩정치路線의 승리였다. 이는 트루먼독트린의선언등 미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힘입은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엔 우리의 끈질긴 외교공작과對外호소가 주효한것이다. 李박사의 對美, 對유엔 正面外交와 미국에 密派된 뒤 2년에 걸쳐 피눈물나게 뛰어다닌 任永信의 遊說外交, 워싱턴에 常駐하면서 陰으로 헌신해온 林炳稷대사의 봉사외교등이 한데 어울린 대단위의 노력이 유엔을 끌어들이기에이른 것이다. 이들의 對유엔외교에선 당시 [illegible] 로물로씨(現外相)가 [illegible] 후원을 해주었다.

특히 任永信이 유엔에서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었던 것은 로물로의장과 엘살바도르대사, 아프리카의 리비아대사등 3人이 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任여사는 유엔에서 54개국대표와 접촉,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반대와 자주적인 독립정부수립을 목메이게 호소했다.

한국에 온 印度人인 메논단장과 중국의 胡世澤박사등 유엔한국임시委員團은 [illegible] 각계지도급인사들을 만나 建國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illegible] 의견을 듣거나 공개된 토론을 하는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였다.

유엔韓委는 맨먼저 李박사를 만난데이어 金九, 金奎植박사, 그리고 각정당·단체의 지도급인사를 만나 의견을청취했다. 나도 3차례나 韓委에 불려가 의견을 진술했다. [illegible]

◆유엔韓國임시委員團의 來韓은 「先建國」을 주장한 李承晩정치노선의 一大승리였다. 사진은 덕수궁 石造殿에서 회의를하는 유엔韓委.

## 統一정책 女性자문위원報告

### 두 敎授강연

평화통일정책諮問會議는 25일 하오1시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女性자문위원 통일정책보고회를 갖고 새시대 統一意志를높이는 한편 正義社會를위한 여성의 사명과 역할을다짐했다.

이날보고회에는 金貞烈수석부의장, 李範錫사무총장, 金相球사무차장및 4백15명의 여성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李사무총장의 우리나라통일정책에 대한 강의와정부관계기관의 「최근의 北韓여성사회 실정」에 대한 보고에이어 金仁子위원(西江大교수)과 金榮禎위원(梨大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 統一기반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金仁子위원**

◇金仁子위원

"女性도統一의 관념·신념이 뿌리내려야"

여성들 가운데 많은수가 민족의 悲劇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의식을 갖는데 소극적이거나 도피적인 입장을 걸어온것이 사실이다.

74년의 부녀관계자료에 의하면 각部處소속 여성단체58개와 市·道別단체 1백27개중 「국제승공연합회부인회」 하나만이 승공·반공·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산주의사회제도를 학술적으로 비판연구하는 단체였다.

나머지 단체는 취미, 여가선용, 친목 아니면 특수기술이나 전문분야별로 상호협조와같은 개인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것이었다.

개인적 욕구충족에만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사회욕구와 필요를 외면한다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하지못한것이다.

조용히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애국하는 길과 통일에 대한 관념이나 신념이 깊이 뿌리내리도록하는 일같은것은 여성들이 할수있는 일이라 믿는다.

여성의 본성인 사랑을근거로 민족애를 발휘, 북쪽의 동포를 구해야겠다는집념을 가져야겠으며 내이웃까지 통일의 염원에 불붙도록 해야한다.

### 새시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의위치

**金榮禎위원**

◇金榮禎위원

"個人·家庭·地域的 차원서 正義 구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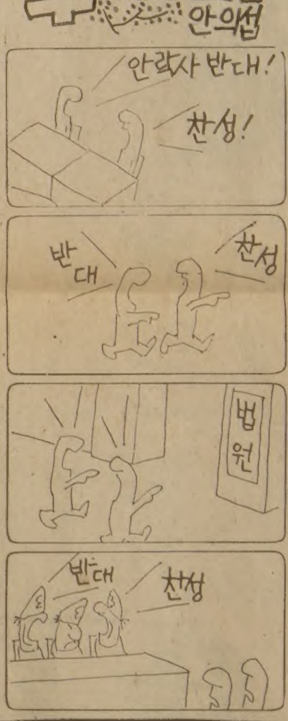
여성들이 正義社會를 효율적으로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사회적인면등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언행일치를 도모하며 허영과 사치를 배격하고 부단히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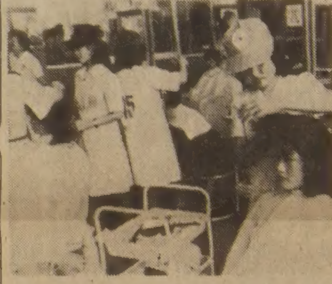
가정적차원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인격과의견을 존중토록 하고 대화로써 유대감을 조성, 인간미 넘치는 가정교육을 시도하며 예의를 바로 가르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있는 자원의 활용을촉진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과 봉사, 지역사회일에적극 참여·협조하며, 국내외정세파악에 신속·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정의사회구현에 공헌한다는것은 부정과 불의를 범하지 않는다는소극적인 입장에서 더나아가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함께 예방하거나 치유하면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데 있다.




## 技能競技 이모저모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미용부문에서 선수들이 머리모양을내는 열전을 벌이고있다。

### 韓服출전자 모두 기초부족

### 手刺繡등 지체障碍者 3名

### 出戰후배격려차 선배들 몰려

○…이번대회부터 새로 채택된 한복직종엔 서울·釜山·江原·全北·全南등 5개市道대표8명이 참가했는데 한결같이 기초가 안돼있어 양장에 밀려 잊혀져가는 한복제조기술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石宙善 한복심사위원장은 기능경기이기때문에 한복을 아름답게 만든것에 심사의역점을 두겠지만 바느질의 순서마저 틀리고있는것은 한복제조기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것같다고 말했다.

○…기계편물과 수자수직종엔 신체부자유선수 3명이 참가, 시선을 끌었다.

신체부자유선수 기계편물직종에 농아 辛美京(20·서울明暉園)과 李景旻양(21·〃) 수자수직종의 朴玉實양(22·서울직업훈련원)등.

이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기능인들로 참관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번대회엔 전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51명의 기능인들이 참가, 교도관의 감호아래 평소갈고닦은 기량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大田교도소 尹東周교도관(46)은 『이들은 전국교도소의 직업훈련원에서 그동안 열심히 기능을 연마,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라면서 가구직종에 제일많은 16명이참가하고있다고밝혔다.

○…경기장주변엔 후배들을 격려키위해 선배들로 웅성거렸다. 79년 전남기계공고를 나온 李根鎬군(21·朝鮮大 공학계열1년)은 선반직종에 출전한 전남기계공고 출신의 2년후배 전경술군(19)을 후원키위해 24일 그의 2년선배인 林鍾辰군(23·東亞大1년)과 함께 와서 경기장주변을 떠나지않았다.

## 뉴욕서도 債券발행

### 第一銀, 내달에

제일은행은 외화조달의 다변화를 위해 지난 21일 유럽금융시장에서 3천만달러의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한데이어 10월중에는 뉴욕금융시장에서 3백만~5백만달러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발행, 매각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 (B) 233-6236, (R) 745-8236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창립 제5주년 기념예배및 장로장립

초대합니다.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창립제 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와 아울러 아래와 같이 두분의 장로장립식도 겸하여 거행하고저하오니 부디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1981년 10월11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주 소: 2500 MIMOSA ROW MISSISSAUGA, ONT.
전 화: 277-2394, 276-5163

창립 제5주년 기념예배

장로장립: 전 동 휘, 배 찬 규

1981년 9월 일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교우일동 드림